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57023

2012年 2月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論文

허균 傳의 社會史的 脈絡

The Context of Social History in Heo Kyun Jeon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李 慧 仁

허균 傳의 社會史的 脈絡

The Context of Social History in Heo Kyun Jeon

2012年 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李 慧 仁

허균 傳의 社會史的 脈絡

指 導 敎 授　鄭　吉　秀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11年 10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李　慧　仁

李慧仁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審 査 委 員 長 朝鮮大學校 敎 授 한예원 印

審 査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임준철 印

審 査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정길수 印

2011年 1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目　　次

ABSTRACT ····· i

Ⅰ. 서　론 ·····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 4

Ⅱ. 허균 傳의 창작배경 ····· 10
1. 시대 情況 ····· 10
2. 사회현실의 인식과 반영 ····· 15

Ⅲ. 조선 사회의 제도적 모순 ····· 18
1. 적서차별제도와「손곡산인전」····· 18
1) 서얼금고의 폐해 ····· 18
2) 신분제도의 모순 ····· 24

2. 과거제도와「엄처사전」····· 31
1) 인재등용의 문제 ····· 31
2) 사대부의 이상과 현실 ····· 33

Ⅳ. 異人의 등장과 초월의 지향 ····· 40
1. 유협의 세계와「장생전」····· 40
1) 사회균열과 俠의 등장 ····· 40
2) 異人과 유협의 면모 ····· 45

2. 도가사상과「장산인전」·「남궁선생전」····· 52
1) 도가사상의 확산 ····· 53
2) 초월세계의 지향과 현실적 한계 ····· 62

Ⅴ. 결　론 ····· 74

※ 참 고 문 헌 ····· 77

ABSTRACT

The Context of Social History in Heo Kyun Jeon

Lee Hye-In
Adviser : Prof. Chung Kil-Soo Litt.D.
Major in Sino-Korean Literatur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Heo Kyun' lived during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n his time, when the feudal society was being collapsed and was quickly transforming into modern society, they suffered severe party strife and poverty. Because 'Heo Kyun' committed a treacherous behavior, his literature scarcely appeared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but in modern era, it was shed new light. At that time, while he was born in a novel family and had prodigious talent, because of the circumstances, he was in constant turmoil.

However hard it was, I was wondering why someone who can live a secure life, has remain a traitor in history. If once the work is produced by author, we should evaluate it as an entity in itself so that we can make an objective evaluation. However, because I consider the background and thought of his important, I thought I should focus on the research about its epoch. and I had tried various reformations of him living in anomie.

Also, in religious aspect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He got a wide range of interests and then he achieved recognition as an diplomat for his greatest ability. As we can see, he is his own man and his open mind is written in his book as it is.

So this paper, based on connectivity of social factor, we will see his works having his thought. For totally understanding his literature, it is required to study it based on comprehensive views.

If we partially look his work, we may have an error of a broad interpretation. Until now, the studies on 'Heo Kyun' has been discussed from various views but it constantly reached he is an innovator who wanted to eliminate contradiction of reality. His works we know, represents people's indignation, who couldn't do what they want to do because of social sanction. Maybe, this indignation is not only limited to certain person, but it represents everyone's thought in the possible way of delivering its idea from fiction and especially a novel. This is the way he chose 'jeon'

Because the characters he made is not in reality and is necessary but couldn't be acceptable, so they should move to be in future, where people can accept them. So, his time is not irrational. In the future, so to speak, this time is an ideal for them, it is just his drawing, and that world is that all we hope. Heo Kyun's this consistent thought, is expressed in his way, Heo Kyun's five works well reflect that era he lived with his consciousness.

Prehistorically, he stood in turning point as thought transformation. In interpreting his works, if possible, I wanted to divest myself of a preconceived idea and to try to consistently understand logical analysis.

A literature is a expression of society. Heo Kyun as a writer had tried to express his life's experience and concept. But a writer couldn't take his whole life into a book, so he just had made an effort to write his time. In social background, We found how he made a diagnosis of social inconsistent and what he did for the nation. In his books, with linking his thought, and social affair. we analyzed how it expressed. I think all of the above works are helpful for us to directly understand social consciousness and motives for writing reflected in his book.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허균(許筠, 1569~1618)은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 문인이자 정치가로서 삶을 살다간 인물이다. 시대를 반역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문학은 조선후기 내내 거의 언급되지 못했으나, 근대로 접어들어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1] 그는 그 당시 명문가문의 집안 환경과 타고난 천재적인 재질을 소유하였으나, 당시 상황은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았던 불행한 시기였다.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누구보다도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그가 왜 반역자로 역사에 남게 됐는지 또 역사 속에서 왜 그렇게 조명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허균은 당시의 유학이 성리학을 중심으로 교조성을 띠는 것에 반대하여 이단인 양명학을 수용하고 천주교 서적을 들여왔으며, 심지어는 불교와 도교를 믿었다 하여 정치권으로부터 탄핵을 당하였다. 또한 명문가의 자제로서 서류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혁명모의를 격려하기도 하고, 끝내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그가 꿈꾸던 이상국가를 건설하려다 발각되어 50세의 나이에 역모죄로 처형당하고 말았다.

이러한 허균에 대한 평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극단적인 엇갈림을 보인다. 조선조에는 "천성이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박학하고 사장에 뛰어나"[2]다고 했으나 "행실을 전혀 단속하지 않으며"[3] "일생동안 해온 일을 보면 악이란 악은 모두 갖추어져 있는" "천지간의 한 괴물"[4]로 그의 빼어난 재주조차도 "필시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뱀이나 쥐의 精일 것"[5]이라고 평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정하고 감상적인 시인이며 사회 제도의 모순과 정치의 부

---

1) 차용주는 "『惺所覆瓿藁』가 역적으로 처형된 인물의 문집이기 때문에 간행은 불가능했더라도 후대로 전해 읽혀진 것은 사실이다. 「南宮先生傳」이 홍만종의 『旬五志』에 그대로 실려 있고, 影印本에 正祖의 御藏書印이 찍혀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惺所覆瓿藁』는 宮中에까지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한다.(차용주, 『許筠硏究』, 경인문화사, 1998, 221면)그러나 허균은 역적으로 처형된 인물이므로 16~17세기를 대표하는 문장가이면서도 각종 선집에 작품이 수록되지 못했고, 그의 작품에 대한 후학들의 언급도 매우 드물다.

2) "賦性聰慧, 博通群書, 長於詞章, 但爲人輕妄, 無足觀者."(『宣祖實錄』, 宣祖 31년 10월 乙丑)

3) "筠則聰明能文章, 專無行檢, 居喪食肉産子, 人皆唾鄙."(안정복, 「天學問答」, 『順庵集』17)

4) "況筠之一生所爲, 萬惡俱備…", "許筠天地間一怪物也."(『光海君日記』, 光海君 10년 4월 29일)

5) "筠爲從事官…聞其博通古書, 至如儒道釋三家書, 無不觸處灑然人莫能當也. 欽退而嘆曰, 此子非人也, 其狀亦不必是狐狸蛇鼠等物精也."(柳夢寅, 『於于野談』)

패상을 통타하려는 경세가요 사상가[6]이었으며, 이조의 절대 권위 앞에 용감히 도전한 인간주의자로서 근대성의 시작을 보여준 인물이며,[7] 시대를 잘못 타고난 예술가이자 제도의 악습을 고발하고 바꾸려 했던 혁명가[8]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허균만큼 그 평가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도 드물다. 허균의 인간됨에 대해서는 古今이 다르며 학자마다 같지가 않다. 그가 이러한 평가를 받는 데는 규범화된 유교적 사회에서 획일성을 거부하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문학적인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방탕한 행동으로 인해 그의 평가가 양분된다. 유학을 중시했으면서도 도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지향했으며, 불교, 도교등 彼岸의 세계를 동경하면서도 또한 현실적 영달에의 꿈을 저버리지도 못했고, 또 당시 지배층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 비판했으면서도 말년에는 이이첨의 무리와 결탁하여 폐모론에 가담했다가 마침내는 역적으로 몰려 처형까지 당하는 사실 등은 분명 허균에게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이다. 어쨌든 허균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임이 사실이므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작품이 작가에 의해 창작이 되어지면 작품을 별개의 독립체로 보아야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개별적으로 보기 보다는 그 작품이 창작되어진 시기와 시대의 배경, 그리고 그 작가의 사상이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생애에 대한 연구 그리고 당대 상황에 대한 연구가 집중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연구의 필요성이 느껴졌다. 그의 행적은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에 대한 재평가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허균의 문학과 사상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잦은 국난과 당쟁, 잘못된 사회제도와 부패한 정치 등 혼란함 속에서 허균은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면 전쟁의 대비책이 소홀함을 지적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당파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해야 함을 역설하고, 심한 적서차별의 상황에서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과 교유한 것 등이다.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유교, 불교, 도교 등에 폭 넓은 관심을 보였으며, 외교가로서 뛰어난 기량과 능력으로 주위에 인정받기도 하였다. 이렇듯 탁월한 재능과 함께 주관이 뚜렷하고 사상이 개방적인 허균의 면모는 그의 문학에도 고스란히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허균의 사상이 투영된 문학작품을 당대 사회의 주요한 요소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6) 김기동, 『이조시대 소설론』, 이우출판사, 1978.
7) 정주동, 『홍길동전 연구』, 민족문화사, 1986.
8) 허경진, 『허균 평전』, 돌베개, 2002.

우선 작자인 허균의 사상을 알아보기 위해 전반적인 생애를 살펴보면 몇 갈래의 특징이 뚜렷이 엿보인다.

첫 번째는, 그는 가정적으로 매우 불행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갈등을 겪었다. 두 번째는, 잦은 파직과 종사관으로서의 활약상이다. 세 번째는, 그는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불우한 사람들과 벗하며 그들을 동정하다가 끝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네 번째는, 본의 아니게 당쟁의 와중에 휘말려 혈투를 계속하다가 50세의 젊은 나이로 불운의 종말을 맞는다는 점이다.

허균이 활동했던 당시 사회는 정치적으로 사화 및 당쟁으로 인하여 극도로 혼란하였다. 더구나 임진왜란은 사회를 극도로 피폐하게 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유교의 폐단으로 인해 모순은 더욱 부각되었다.

> 문학은 시대마다 새롭게 제기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변모되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 설 때, 허균시대의 문학으로서 특히 중요시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소설이다. 허균은 이러한 인식에서 소설을 논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소설을 썼고 소설을 통해서 현실을 반영하고 비판했다. 상하의 정이통하는 문학 그리고 常語로서 이루어진 문학 독창적인 문학은 무엇보다도 소설이었다.[9]

이런 조동일의 관점에서 볼 때 허균의 현실반영 및 비판의식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다른 어떤 작품보다도 그의 傳에 잘 드러난다. 허균의 문집인 『성소부부고』에 실려 있는 傳 5편 「엄처사전」·「손곡산인전」·「장산인전」·「남궁선생전」·「장생전」은 당시의 사회상과 자신의 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당시의 부조리한 사회상과 모순을 그의 작품에 반영하며 그의 문학관을 드러내었고, 내면세계를 표출한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또는 부각되는 측면에 따라 많은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허균 傳을 좀 더 유연하게 수용하여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허균이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그 치유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다. 또한 그것이 작품으로 형상화되었을 때 얼마나 미적 완성에 충실했느냐도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허균이 작품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현실적 제도에 관한 것과 그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방책, 그리고 작품에 제시해 놓은 대안이 그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허균이 지은 5편의 傳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떠한

9) 조동일,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2005, 179면 참조.

방식으로 투영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하려한다. 분석을 통하여 허균이 당시에 느끼고 생각한 실재와 당대의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해석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허균에 대한 연구는 異論이 분분하였는데, 대략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6~17세기 사회 속에서는 이단아, 반역아, 혁명가로 일컬어져 왔지만, 근대 한국문학사는 그를 새 시대의 지평을 열어가는 불세출의 문학가로 평가하고 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양 극단으로 갈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의 사상과 행동, 인물을 공정하게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大北系 黨人으로 활동했으면서도 대북계 인물들에 의해 역모혐의로 처단 당했다. 그가 남긴 자료는 이러한 그의 행적을 설득력 있게 해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밑받침해주지 못한다.

지금까지 허균에 대한 연구는 주로 思想史, 文學史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10] 시인·문장가로서의 그의 탁월한 능력, 그리고 당시로서는 이질적인 사상에 그가 깊이 빠져 있었던 점에 우선 주목했던 것이다. 반면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정치이념과 관련해서 그의 사상적 이면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있다.[11]

허균은 운명적으로 타고난 가정환경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남다른 유복함과 사회적 기반,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잘 마련된 문학적 분위기 등은 그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도 결과론적이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다. 연속되는 가정적 비극은 허균의 의식 깊은 곳에 또 다른 가치의 삶을 꿈꾸게 하는 요소를 낳게 하고 있다. 그가 가진 천재성은 仕宦의 길에서 잘 나타난 것과 같이 순탄치 못한 일들로 이어졌다. 타고난 영특함과 노력은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으나 그에게는 언제나 양면적인 평가가 뒤따랐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곧 제도적 검증과 그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의식과는 언제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현실과 자신이 소망하는 결과의 괴리현상이 그의 삶을 굴곡지

---

10) 신동욱, 『許筠의 문학과 혁신사상』, 새문사, 1981; 이가원, 『유교반도 허균-허균의 사상과 문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11) 이이화, 『허균의 생각-그 개혁과 저항의 이론』, 여강출판사, 1991.

게 하고 있다. 그 괴리된 모습들의 문학적 형상화는 그가 처한 가정적, 그리고 환경적 현상들은 그의 삶을 평탄하지 않게 한다. 어쩌면 너무나 완벽하게 잘 마련된 그의 가정환경이 그를 그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는지도 모른다.[12]

허균의 산문과 관련된 연구를 연대별로 짚어보면 1950년대까지는 문헌연구에 치중하였고, 50년대로부터 70년대까지는 「홍길동전」과 연관하여 허균의 민중의식과 인물론, 문학론 등에 대한 연구의 심화를 보였다. 또한 70년대부터는 기존 연구의 비판적 수용과 방법론의 전환을 제시하는 흐름이 시작되기도 하였다.[13] 이를 종합 정리한 연구 결과가 80년대 초에 이루어졌다.[14] 이러한 연구는 허균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90년대 이후에는 전대의 연구를 바탕으로 『惺所覆瓿藁』에 실린 작품을 문체별로 연구하기 시작했다.[15] 2000년대에 들어서면 허균 문학을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연관하여 검토하거나,[16] 당대 중국 문단과의 관계에서 조명하려는 연구가 시도 되었다.[17]

허균 傳에 대한 연구는 김현룡이 「蛟山의 南宮先生傳 硏究」에서 주로 중국의 「太平廣記」와의 영향관계를 다룬 연구가 있고, 이화섭의 「許筠의 傳体小說考」, 조문주의 「허균의 한문전 연구」가 있다. 작가론 측면에서의 연구도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는데 홍승화의 「교산의 한문소설에 관한 연구」, 이동근의 「허균전의 문학사적 일고찰」, 이종찬의 「허균의 인간적 갈등과 남궁선생전」, 이재수의 「남궁선생전과 장생전」 등 이 있다. 도가사상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로는 최삼룡의 『한국초기소설의 도선사상』이 있다. 특히 道仙사상과 관련해서는 內丹學의 敎理가 작품에 구현되고 있는 양상을 중심으로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들이 있었다.[18] 道仙사상과 관련해서는 종교적 교리나 신앙체계가 실제 작가의 내면 의식세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까지 접근해야 할 것이다.

---

12) 강동엽, 『조선 지식인의 문학과 현실인식』, 박이정, 2008, 44면 참조.

13) 80년대 이전의 허균문학에 관한 기존 업적을 정리 분석한 연구사는 서대석에 의해 이미 다루어진바 있다(서대석, 「허균문학의 연구사적 비판」, 『許筠의 문학과 혁신사상』, 새문사, 1981, 32-45면).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상기 논문에 미룬다.

14) 이문규, 『許筠散文文學硏究』, 도서출판 삼지원, 1986.

15) 정교주, 「許筠文學硏究-문학관과 산문작품의 갈래별 특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6) 강명관, 『안쪽과 바깥쪽』, 소명출판, 2007; 윤채근, 「허균 傳에 나타난 不穩한 인간상의 문제」, 『한문학논집』28, 근역한문학회, 2009.

17) 박현규, 「허균이 도입한 李贄의 저서」, 『중국어문학』46, 영남중국어문학회, 2005.

18) 강동엽, 「許筠의 傳에 대한 考察」, 『한국한문학연구』2, 한국한문학연구회, 1977; 박영호, 「傳을 통해 본 許筠의 도교사상」, 『한국도교사상의 이해』, 아세아문화사, 1990; 최창록, 「허균의 신선관과 신선전」, 『한국신선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89.

허균 傳의 연구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허균의 생애와 입전 인물의 유사성에 착안한 연구가 있다. 미천한 신분의 인물을 입전하고, 능력은 있으나 불우한 인생을 살다간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점은 허균이 평소 서얼 등과 친분을 가지고 생활해온 점과 유사하다는 논점이다.[19]

소재영은 작품의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천류인 점이 공통적이며, 사회적 장벽 때문에 탁월한 재능이 있으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그로인한 당시 사회와의 갈등을 문제삼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남궁두의 현실저항, 장생의 이상향 추구, 장한웅의 方術과 尸解는 모두 道術의 매체를 통한 작자 자신의 내면세계를 형상화한 것들이며, 엄처사나 이달 역시 모순된 사회에 대해 내면적 저항을 형상화한 것이다."라고 하여 허균의 5편의 傳을 抵抗意志의 표현으로 보았다.[20]

둘째는 종교사상적 연구로서 허균의 전을 종교적 측면이 강한 작품이라는 시각으로 논한 것이다. 허균이 도교 및 불교에 심취하였기에 그의 傳 역시 종교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논점이다.[21] 허균의 작품 중 「장생전」이 이인설화를 수용한 '神仙傳'으로서, 허균의 仙家취향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장산인전」·「남궁선생전」과 같은 허균의 다른 傳에서 강하게 풍기는 道仙的 취향은 「장생전」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신선전'으로 묶이게 했다. 허균의 傳에 신선적 분위기가 깔려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조선 전기 傳에 나타나는 '신선전'의 창작경향과 허균의 道仙的 기질에 경도되어 「장생전」에서 다루어지는 俠의 형상을 異人的 면모를 드러낸 것으로만 치부한 것이 아닌가 한다.

셋째는 사회적 갈등속에서 형성된 허균의 개성존중 혹은 인간존중사상이 다섯편의 傳에 투영되어 있다고 보는 연구이다. 홍승화는 "조선조 권위화된 예교와 신분사회에 소극적이나마 저항함으로써 본격적 저항문학의 가능성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쓰고 傳 5편의 저항문학적 성격도 밝히고 있다.[22] 장덕순은 "허균이 제시하고 있는 인물은 하나같이 불우의 인물들이다. 그들은 비록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들이라 해도 세상에 수용될 수 없다는 데서 그들은 본질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이다. 이런 점에서 허균의 현실적 삶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여 不遇한 人間像의 제시라 하고 "작가는 작품 속에서 이들을 따스한 눈으로 대하고 있으며, 긍정적 평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허균이 문학을 통하여 인간적 가

---

19) 소재영, 「허균의 생애와 문학」, 『허균연구』, 새문사, 1992, 14면 참조.
20) 소재영, 「허균 소설의 문학사적 위상」, 『국문학편답기』, 아세아문화사, 1999, 96면 참조.
21) 신재홍, 「허균의 한문단편 연구」, 서울대학교, 1986.
22) 홍승화, 「蛟山의 漢文小說에 관한 硏究」, 『伏賢漢文學』1, 伏賢漢文學硏究會, 1982, 214~219면 참조.

치를 옹호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간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허균문학에는 소위 휴머니즘의 문학정신이 싹트고 있다고 말해질 수 있다."라고 하여 허균 傳의 휴머니즘적 성격을 밝혔다.[23]

그러나 이 연구들에는 몇 가지 미진한 점이 있다. 먼저 허균의 傳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다 미천한 신분만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傳에 등장하는 인물이 모두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는 불우한 처지이지만, 작자의 불우한 처지와 겹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종래의 연구들은 허균이라는 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가 쓴 傳의 내용을 그 작가와 동일한 가치선상에 올려놓고 평가하는 경향이 많다. 다섯 편의 傳이 곧 허균 자신인 것 마냥 평가한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작품분석 후에 여러 측면에서 일치점이 보이며, 작자의 사상적 단면을 규찰할 수가 있다'라는 의견은 다소 비약적이다. 작자와 작품의 관계성에 너무 치우쳐서 작품 자체의 의미파악을 혼란시키고 있다. 허균이라는 작자의 인상이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 그 작자가 지은 작품마저도 압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허균의 傳이 모두 종교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며 종교적 입장에서 전개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허균이 도교와 불교에 심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엄처사전」이나 「손곡산인전」은 유교적 면모를 거론하며, 입장 차이를 달리했을 뿐이지 사상적인 개념을 가진 작품은 아니다. 다섯편의 傳은 당대의 이념인 유교를 勃壤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작품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도가적 삶을 살아간 기인들을 입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강동엽은 '남궁선생'의 당시 부패한 사회에 대한 항거와, '장생'의 이상세계를 찾아가는 행위는 모두 도술이라는 특이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을 통한 작자 자신의 내면세계를 작품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손곡'이나 '엄처사' 그리고 '장산인' 역시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보다는 문벌과 신분계층에 의하여 규정지어지는 모순된 사회에 태어난 불우한 인간들이었으며, 이들 인간들에 대한 작자의 이상과 현실과의 마찰은 때때로 격렬한 저항으로 또는 현실을 떠나 자못 老佛者類인 체하나 그는 결국 자신의 꿈을 작품으로 형상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24]

마지막으로 본고의 취지와 결합하는 부분이 다소 있지만 다른 점은 각 작품의 상황이 사회적 모순속에서 각각 갈등으로 전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갈등과 맞물려 전개 되더라도 갈등으로 허균의 사상이 각 작품마다 드러나 있

---

23) 장덕순, 「許筠문학의 文學史的 位置」, 『許筠의 문학과 혁신사상』, 새문사, 1981.
24) 강동엽, 『조선 지식인의 문학과 현실인식』, 박이정, 2008, 156~157면 참조.

지는 않다. 물론 허균이 입전의 대상으로 선정한 인물들은 신분상 중인이거나 하층에 속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상층 신분에 속한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이 상승되거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신선을 꿈꾸거나 地上仙으로, 자기만족에 머무를 뿐 당시 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의지나 노력을 보여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작가와 내용의 등가적 평가에 문제를 남겨주고 있다.

허균 문학의 총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개별사안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조망이 요구된다. 자칫 부분적으로 허균 문학 전체를 논단할 때 지나친 확대 해석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 지금까지 허균 문학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현실모순을 제거하려는 혁신사상의 소유자'라는 보편적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허균의 당대사회 모순극복 의지의 표현은 「호민론」·「홍길동전」 등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고 그의 문학과 사상 전체를 개혁의지의 표명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도가사상이 이단으로 배척받았지만 유난히 당쟁과 사화의 禍亂이 극심하였던 조선조의 儒者들은 明哲保身을 위한 자구책으로, 그리고 학문을 위한 방편으로 내면적으로는 도가사상을 가까이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엄격한 유교사회 속에서 비록 이단으로 배척받았다고는 하지만 현실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수련을 위해 많은 이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도가사상에 심취했었던 허균의 인식태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존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허균을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道仙에 연결시켰을 뿐, 16~17세기의 전반적인 경향에 照應시켜서는 파악하지 못하였고, 道仙에 대한 허균의 태도 변화에도 의미있는 질서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별 작품들에 대해서도 단편적인 사실만을 나열하거나, 작품 상호간의 관계를 규명하지 않고서 전체 작품을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 같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사 등을 참고하며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적 情況을 살펴볼 때, 허균의 활동기인 16~17세기는 사회적으로 사화 및 당쟁으로 인하여 극도로 혼란한 시기로, 임진왜란으로 인한 사회적 피폐는 말도 못하게 사회를 심란하게 하였다. 일종의 전환기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유교적 폐단이 일어나게 했고 이런 혼란과 격동의 시기를 경험하면서 허균이 그의 세계관과 문학관을 형성하게 된 경위를 살펴볼 것이다.

허균이 입전한 이 傳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도 사회적 제약 때문에 그것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분노이다.[25] 이 분노는 특정인에 국한되

기 보다는 당대인 모두의 소리일 것이며, 문학, 특히 소설적 방법은 그 소리를 전달하는 데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허균이 사용한 방법 중의 하나가 이 '傳'이다.

그가 입전을 통하여 창조한 인물들은 꼭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용납되지 못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사회가 필요한 인물로 자리를 옮겨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실이 그만큼 불합리한 것이 된다. 이 미래의 '주인공'들을 통한 사회의 모습은 보다 '이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가 그리는 세계이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계인지도 모른다. 허균은 이런 일관된 그의 생각을 여러 방식에 의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26]

허균이 지은 5편의 傳은 그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에 대한 자신의 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시대적으로도 전환기인 시점에서 허균은 사상적으로도 전환점의 기로에 서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장에서 시대적 정황을 소략하게나마 검토하려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본고의 본론 요지는 크게 3장으로 구분된다. 2장의 허균이 활동하던 시대상황과 사회 현실인식의 반영, 그리고 3장의 허균 傳에 투영된 사회제도 인식, 4장의 異人의 등장과 초월의 지향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앞의 논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고 본고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미진한 문제와 향후 요망되는 과제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본 그의 사상과 문학관이 그의 작품에 어떠한 방식으로 투영되어 있는지 다각도로 조명해보고, 종합적 고찰을 해 볼 것이다. 그리고 허균의 시대상황과 생각을 접목 시킬 때, 무분별한 나열식의 연구를 지양하고, 허균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 자신과 사회와의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중요한 쟁점만을 중심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

25) 조동일,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2005, 173면 참조.
26) 강동엽, 『조선 지식인의 문학과 현실인식』, 박이정, 2008, 65면 참조.

Ⅱ. 허균 傳의 창작배경

이 장에서는 허균이 살았던 16~17세기의 혼란한 시대 상황들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5편의 傳에 영향을 주었을 배경에 주목해 보기로 한다. 허균은 자기가 처한 현실은 결코 자신과 유리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부조리한 현실을 통렬하게 비판한 사례를 그의 傳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시대 정황과 입전동기 그리고 작품의 특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당대 현실속에서 쓰여진 작품의 입전동기와 특질을 살펴보는 것은 작품 그리고 작자에게 한발자국 더 다가가고자 함이다. 이 작업을 통해 시대적 상황과 작품의 세부분석을 하기위한 발판을 삼을 수 있다. 배경을 알아 둠으로써 작품의 성격과 특징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장은 Ⅲ장과 Ⅳ장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1. 시대 情況

작품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작가가 살아온 배경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작가와 시대적 배경과 생애가 작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허균이 살던 시기는 16~17세기로 당쟁과 성리학의 현실 유지적이고 공리공론적인 명분론, 임진왜란의 발생과 광해군의 폭정, 이에 따른 농촌의 황폐화와 민란, 더욱 가중되는 백성의 생활고와 신분차별 등 분열과 혼란의 시대였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살면서 허균이 무슨 생각을 했으며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허균이 살았던 16~17세기는 밖으로는 임진왜란이라는 민족사적 수난, 안으로는 망국적인 당쟁의 격화와 민생의 곤궁, 광해군의 폭정, 봉건사회의 체제가 붕괴되고 근대사회로 이행되어 가는 사상의 동요를 경험한, 참으로 다사다난한 환란의 시기였다. 붕당의 정권 쟁탈의 사회와 임진왜란의 소용돌이에 말린 선조와 광해군대 사회는 극도로 혼란하고 피폐하기 이를 데 없었다. 거기에다가 엄격한 신분제도는 계급간의 반목을 강력하게 대두시켰으며, 임진왜란 후에 질병과 기근은 민생을 더욱 도탄으로 몰아넣었다. 이 같은 사회적 혼란을 몸소 보고 겪은 허균은 개혁의지를 지니고 그것들에 저항했으며 끝내는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悲命에 죽어갔다.

여기서는 허균이 살았던 시대의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임진왜란의 피해와 사상적 동요, 당쟁의 격화, 민생고와 流民문제, 서얼차별 등의 문제로 크게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임진왜란은 직접적, 물질적 희생만 따져 보더라도 유례없이 참혹한 전쟁이었다. 30여만의 인명피해와 경작 토지 감소 등의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亂中의 국토 초토화와 민생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戰死者의 시체가 시구문의 담보다 높이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다고 한 『芝峯類說』의 기록, 굶주린 백성들이 솔잎을 빻아 그 가루를 먹으며 연명한다고 한 『練藜室記述』의 기록, 적에게 피살되어 길바닥에 누운 어머니의 젖을 빨며 울부짖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담은 『懲毖錄』의 기록, 『宣祖實錄』의 사헌부 啓文가운데 국고가 바닥났고 늘어나는 유민에 줄어드는 곡식, 가중되는 추위와 전염병으로 쌓인 시체가 언덕을 이루었다는 내용, 人之相食에 이르고 부모형제가 서로 길 가는 사람 보듯 하기에 이르렀다고 한 『亂中雜錄』의 기록 등은 그 참상에 전율을 금할 수 없게 한다.[27]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실제적·물질적 피해보다 더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당시 지배층의 무능과 위선이 여지없이 폭로되고 피지배층 민중들의 자의식이 눈을 떠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중세의 봉건적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이 싹 트는 사상적 변혁의 계기가 된 점이라 생각된다. 주체적 의식화와 민중에의 접근을 중심으로 작가의식이 성장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바, 자기 시대의 문학적, 사상적 요청에 대해 가치있는 대응을 보였다고 여겨진다.

특히 허균은 임진왜란 중 피난지에서 부인과 첫아들을 잃은 개인적 불행을 비롯하여, 그의 시 「記見」, 「老客婦怨」에서의 임진왜란의 참상 묘사, 「兵論」, 「西邊備虜考序」에서의 자주 국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가 지은 『東征錄』이 그 후 임진왜란 시기의 『宣祖實錄』편찬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는 사실[28]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진왜란의 체험이 그의 문학과 사상 형성에 끼친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후에 수급책이 미약하여 민심이 동요되고 격양되어 불안의식으로 인해 도적이 많이 생겨 민생과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정치적으로는 당쟁의 격화로 인해 불신풍조가 만연되었다. 학자·정치인들 사이의 반목과 갈등이 특히 심하여 이로 인해 국정의 기강이 문란해졌고, 국민 생활은 궁핍해졌다. 여기에 임진왜란의 피해가 겹쳐 국력과 민생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집권층은 국리민복을 제쳐놓고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私利와 黨利만을 위해 싸웠음은 실로 통탄할 일이었다. 이어서 당쟁의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최초의 당쟁은 선조 8(1575)년에 沈義謙과 金孝元의 반목으로 발단되었다. 김효

---

27) 소재영, 『壬丙兩亂의 충격과 문학적 대응』, 지식산업사, 1987, 415면 참조.
28) 이이화, 『허균의 생각』, 여강출판사, 1991, 197면 참조.

원 일파는 東人으로, 대사헌 許曄을 領袖로 하여 李滉, 曺植의 문인이 많았고, 심의겸 일파는 西人으로, 좌의정 朴淳을 領袖로 하여 李珥, 成渾의 문인이 많았다. 이이는 양파의 대립을 조정하려고 노력했으나 끝내 실패하고 그 자신도 예측할 수 없는 파쟁에 휩쓸려 西人의 일원이 되었다. 이이가 죽고난후 이산해, 노수신, 유성룡 등 東人들이 속속 등용되어 西人의 세력이 날로 쇠잔해 가던 중, 선조 24(1591)년에 東人은 다시 南人과 北人으로 분열되었다. 南人은 우성전, 유성룡, 김성일, 이덕형 등이 중심이 되었고 北人은 이발, 이산해, 유영경 등이었다.

이런 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선조가 숭의문을 나서 피난길에 오르자 난민들이 일어나 장예원, 형조,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을 불태우고 內帑庫를 약탈하였다. 이 사실은 私利와 黨利만 일삼다가 나라를 망쳐 놓고 자기들 살 길 찾기에만 급급한 지배층에 대하여 민중들의 반감과 증오심이 얼마나 컸던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임진왜란 중에는 黨論에 대해 잠시 자숙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亂後에는 재연되어 남인인 유성룡이 북인에게 탄핵되어 영의정을 그만두자 북인들이 세력을 얻었다.

선조 32(1599)년에는 洪汝淳이 대사헌이 되려 할 때 異論이 생겨 홍여순·이산해·기자헌의 大北派, 남이공·김진국·유영경의 小北派로 분열되어 반목의 도를 더해 갔다. 선조 40(1607)년에는 인목대비가 적자인 영창대군을 낳자 왕위 계승권을 놓고 대북파 소북파 간에 치열한 쟁투를 벌여 선조의 승하를 계기로 광해군이 즉위하니 대북파가 정치권력을 전횡하기에 이르렀다. 또 광해군 대에는 정권탈취를 위한 암투로서 잦은 僞獄事件이 벌어져 정치의 부패와 혼란을 가중시켰다. 주요한 사건 몇가지를 들어보면 광해 元年의 임해군 살해, 5(1613)년에 金悌男과 영창대군 살해, 7(1615)년에 능창군 살해, 9(1617)년에 인목대비 폐모론 야기, 10(1618)년에 大妃 폐출 등이다.

이러한 당쟁과 정치 부패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유능한 인재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점, 사대부들의 충성심이 변질되고 민심이 이반되어 반란이 잦아진다는 점, 官紀가 문란해져 매관매직과 가렴주구가 심해진다는 점 등이다. 허균은 「小人論」에서 망국적인 당쟁의 폐해를 통렬히 비판하였고, 정파를 초월하여 鄭澈의 문학이나 유성룡의 경륜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이의 內政 改革策을 지지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비판안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적서차별은 이 시대에 있어 중요한 사회문제중의 하나로서 서류들의 신분을 제한하여 그들의 진로를 억압한 제도이다.[29] 이 적서차별제도는 조선조가 건국되어

『경국대전』에 '庶孼永世禁錮法'을 끼워 넣으면서부터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서얼과 그 자손들 그리고 개가한 여자의 자식은 벼슬길에 나서지 못하게 되었다. 태종 15(1415)년에 시작된 적서차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에 왕실 내에서 계승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골육상쟁의 참극을 막고자 한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것이 관료에게도 적용되고 제도화되어 成宗朝에 이르러서는 서자들은 대부분 금고령의 제물로 희생되거나 은퇴의 길을 택하여 후진양성의 훈장으로 일생을 마쳤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정책적 쟁점이 되어왔던 서얼차별에 대한 허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古今은 멀고도 오래이며, 천하는 넓으나 서얼 출신이라고 해서 어진인재를 버리고, 어머니가 개가했으니, 그의 재능을 쓰지 않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우리나라만이 그렇지 않아서, 어머니가 천하거나 개가했으면 그 자손은 벼슬길에 끼지 못한다. 변변찮은 나라로서 두 오랑캐 사이에 끼어있으니,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쓰이지 못할까 오히려 두려워하여도 혹 나라 일이 제대로 될지 점칠 수 없다. 그런데 도리어 스스로 그 길을 막고는 우리나라엔 인재가 없다고 탄식한다."[30]

이렇게 제도적 모순을 안고 출발한 서얼영세금고법은 율곡이 형조판서로 있으면서 상소한 바 있으나 금고령은 되살려지고 말았다. 이에 격분한 서양갑, 심우영, 이경준, 김평손 등이 連名으로 상소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高宗 甲午 六月 二十八日 國運機務處가 件議案 중에서 완전히 해제되었다.[31] 이러한 계급 및 적서의 차별 등으로 출가한 인재와 호걸들이 자기의 이상을 펴보지 못하고 불우한 일생을 보낸 것이 당시의 사회상이었다.

정치적으로는 문인 학자들 간의 파벌과 대립은 훈구파·절의파·사림파 등으로 분열되고, 正實·出身·主義·感情·鄕閥 등을 따져 반목 대립하여 오다가 기성세력인 훈구파와 신진 세력인 사림파 간의 대립이 심각해졌다. 조선 전기에는 여러 차례 士禍가 일어났는데, 대개 정치·경제적으로 기득권을 잡고 있는 훈구파와 그들의 부정과 부조리를 비판하는 사림사이에 일어난 정치적 사건이다. 김종직 일계가 유자광 중심의 훈구파에게 당한 무오사화(1498), 유자광이 연산군의 생모 윤씨의 폐비와 복위사건을 기화로 일으켰던 갑자사화(1504), 지치주의를 내세우던 조광조 일계가

---

29) 강동엽, 「洪吉童傳의 主題攷」,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2, 5면 참조.

30) "古今之遠且久, 天下之廣, 未聞有孼出而棄其賢, 毋改適而不用其才者. 我國則不然, 毋賤與改適者之子孫, 俱不齒仕路. 以區區之國, 介於兩虜之間, 猶恐才之不爲我用, 或不卜其濟事. 乃反自塞其路而自歎曰, 無才無才."(許筠, 「遺才論」, 『國譯 惺所覆瓿藁』2, 191면)

31) 이가원, 「高宗實錄三十一 甲午 六月二十八日條의 進義論」,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5.

훈구파 남곤과 심정에게 당한 기묘사화(1519), 인종의 외삼촌인 윤임이 대윤파 사림을 비호하다가 명종의 외삼촌인 윤원형의 소윤파에게 축출당한 을사사화(1545)가 모두 사림들의 패배로 끝났다. 이와 같이 4대사화가 잇달아 일어나므로써 자연히 지배계급간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다.

허균은 정권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기득권층 이었다. 아버지 허엽이 젊은 사림들에게 추대되어 동인의 領袖로 활약했고, 장인 김효원은 동인의 선봉장으로 나섰다가 삼척부사로 좌천되기까지 했던 인물이었다. 작은형 허봉이 병조판서였던 율곡 이이를 탄핵했다가 귀양 가면서 가세가 기울긴 했지만, 큰형 허성은 이조판서까지 오를 정도로 여전히 정치력이 있었다. 그의 생가였던 건천동이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주위 인물들이 동인이라고 불렀는데, 장인이 된 김효원, 영의정까지 오른 스승 유성룡, 작은형을 구해준 영의정 노수신 등이 모두 그의 후원자였다. 그러나 허균은 이러한 기득권을 포기하고 혁명가로 나섰다. 체제를 비판하는 논설을 수없이 썼지만, 그 정도의 글로 개혁하기에는 사회가 너무도 많이 곪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정치사적 정황은 허균의 관직생활시기와 對當된다. 즉 허균이 벼슬에 나아가 그 삶의 여정을 마친 것은 선조(1567~1607)의 治世 말기에서 광해군(1608~1622)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임진왜란이라는 국란 때문에 사대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층, 주로 민가층에 기반을 둔 계층의 생활상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파경에 달한 시기였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기강도 문란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파탄으로 인한 공공연한 민가의 수탈과 매관매직이 성행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治者階級들은 조선 중기의 전환기적 운명을 의식하고 있었다.

개인의 이익이나 一黨의 집권을 위해서 상대당을 공격하는 까닭에 유능한 인재가 있어도 능력을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물러나곤 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으로 인한 비참한 戰禍는 국민들의 감정을 각박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대부들에게 충성하는 자세로 변질되고, 饑民들은 대낮에도 도둑질을 할 정도로 민심이 사나워져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그 중에는 士賊도 적지 않았다.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은 난폭한 성격탓으로 대북파의 흉계와 모략에 빠져 同腹兄인 임해군을 비롯하여 영창대군을 역모로 몰아 죽이고, 인목대비를 폐출하여 西宮에 유폐시키는 등 不倫과 난폭으로 군주의 위신을 실추하였다. 광해군의 폭정과 당쟁의 소란과 전쟁의 거듭됨 속에서 민생은 더욱 참담해졌고, 사림세력은 불평에 가득찼으며 사회의 혼란은 더욱 더 심해졌다. 이와 같은 어지러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허균도 자연히 이 같은 혼란스러운 정치적 배경을 안고 살아 불만을 품은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또한 허균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현실의 인식과 반영

문학작품은 다분히 당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므로, 작품을 연구함에 있어 그 작품의 형성에 관여한 사회적 제반 여건을 살펴보는 일은 작품의 이해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품형성에 바탕이 되는 주변적인 상황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허균의 현실인식과 작품에 직접적으로 투영된 의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임진왜란을 겪고 난 조선사회는 부조리와 불합리로 인하여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러므로 역적으로 처형된 허균과 그를 동조하는 사람들은 당세를 혁신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이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허균의 작품에 잘 드러난다. 허균은 작품을 통하여 당세의 부패한 지배층과 불합리한 인재등용, 비효율적인 관리체계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이화는 역사학적 관점에서 허균과 그의 작품을 개괄하였다.[32] 배영주는 「홍길동전」과 한문 傳에 드러나는 현실인식은 17세기 초 조선사회에서 배태된 결과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그 사상의 구체성을 시대적 배경하에서 찾았고, 기성 질서의 재편성과 사회 모순의 개혁에 초점이 모아졌다고 논구하였다.[33]

허균이 다섯편의 傳을 쓴 시기는 광해군 3년으로 추정된다. 이때는 허균이 소외와 냉대를 받던 시기로서 당대 사회의 모순을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을 때이다. 임진왜란을 통해 처참한 현실을 체험했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는 현실을 개탄하기도 하였으며, 정치적으로 사대부만이 참여할 수 있는 엄격한 신분제의 사회와 계속되는 당쟁은 허균으로 하여금 퇴색하는 유교적 봉건사회의 모순을 발견하게 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지주전호제가 실시되고, 사상적으로는 상하의 윤리를 강조하여 성리학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양반관료 중심의 사회였다. 이와 같은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부조리한 현실을 투철하게 인식한 허균은 당시에는 이단으로 배척을 받았던 불교·도교·양명학 등과 긴밀한 인연을 맺기도 하였으며, 민중적 입장에서 사회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하는 등 역사의 새로운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

32) 이이화, 『許筠의 생각』, 여강출판사, 1991.
33) 배영주, 「許筠의 文學에 나타난 思想硏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당대 사회 질서가 내적 붕괴를 시작하던 환경과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면서 안으로 내포되어 온 사회개혁의 의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추구하게 하였고, 형식화된 한 가지 종교에 매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광범위한 신앙세계를 섭렵하게 하였다. 이러한 허균의 근대적 의식은 사회개혁의 의식으로 나타나며, 결국 휴머니즘적 인간상의 구현을 위해서 소극적이나마 이상주의적 작품을 쓰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것이 바로 한문 傳의 창작이다. 작자가 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관점에 따라 작품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허균이 입전한 인물들은 모두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기름같이 겉돌면서 자신들의 세계만을 추구하는 불우한 능력자들이다. 당시 사회가 지닌 구조적 모순들을 파악하고 이 문제들을 개혁하기 보다는, 그러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한 인물들이었다. 작품속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으나, 현실의 불합리 때문에, 지닌 포부를 펴볼 수 없는 불우인 이었다. 이런 주인공들은 작품속에서 이미 강한 갈등적 요소를 지니게 되며, 따라서 그의 작품은 개인과 사회의 마찰가능성을 마련하고 있어, 이전의 어떤 글보다도 작품 내적긴장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허균은 傳에 가장 관심 깊었던 특이한 인물들의 사실을 기록하였다. 허균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채 불우하게 隱士로서의 생을 보낸 자들의 일화를 후세에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허균의 傳에 소개된 주인공이 모두 은둔자 였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서류나 하급관리 또는 신분이 비천한 자들과 교유하기를 즐겼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처사·산인 이라는 제목부터가 은둔자적인 행색을 드러낸다. 허균은 인품이 훌륭하고 효성스럽거나 뛰어난 재주를 지닌 자들이 현달하지 못하고 山谷間에 묻히게 되는 것을 항상 탄식하였다.

허균은 어째서 지체가 높지 않은 隱士들을 소재로 선택하였으며, 대부분 기이한 인물들의 행적을 표현하려고 하였을까?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더불어 허균으로서는 불우자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써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에 허균과 접촉하였던 인물들의 이인적 설화를 소개하고 아울러 작품속 주인공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작품을 쓰게 된 까닭을 알 수 있게 된다. 곧 그가 관여하였던 사상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신선전이 성립하게 된 원인까지도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허균은 인간에 대한 인식의 폭을 크게 넓힌 작가라고 할 수 있으며 작품속에서 소외된 인물을 다루어 부각시킴으로써 이들의 삶을 보편적인 가치속에 끼어들게 하였고, 또 존재 가치를 부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허균의 작품은 彼岸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들이 많다. 또한 그 작중인물들의 생애가 불우한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현실과 부딪쳐 보니 거기서 문제해결을 찾지 못하고 늘 소외감을 갖게 되고, 기성 사대부들에게 밀려 이상을 펴보지 못한데에 대한 갈등이 많았다. 그의 작중인물들은 彼岸의 세계에 대한 뚜렷한 지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의 작품적 특성으로 남게 되었다. 이것 또한 그의 신분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보이며, 그의 작품 분석을 통해 자세히 고찰해 봐야 할 것이다. 허균은 작품속에 불우한 능력자의 삶을 통해,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당대 사회현실이 가지고 있는 모순들을 지적하여 드러내고자, 이들 인물을 입전하였다.

주인공의 성격을 비교분석해보면, 「손곡산인전」의 이달은 서자였기에 세상 활동은 못했으나, 성격이 활달해 예교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온 뛰어난 시인이었다. 「엄처사전」의 엄충정은 아주 빈곤한 생활을 하였으나 청빈하며, 유가에 충실한 인물이다. 「장생전」의 장생은 어려서부터 걸식을 하며 지냈으나, 여러 가지 재능이 뛰어나고 기품이 빼어났으며 도적의 수령 노릇을 했고 仙道를 익혔다. 「장산인전」의 장한웅은 三代를 의업에 종사하였으나, 仙道를 익혀 귀신을 부렸다. 「남궁선생전」의 남궁두는 아전 출신인데, 비타협적 성격이고, 獄死를 피해 도망친 후 仙道를 익혀 地上仙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미천해서 방랑과 걸식 그리고 은둔으로 세상을 마친 비극적 인물들로 작품이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그의 평민의식과 민중사상을 단편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으며, 모순된 사회제도의 개혁의지와 그의 人道精神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의 스승인 李達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진다. 그는 不遇한 계급편에 서서 모순된 정치세계와 사회제도에 대해 그 나름의 대결을 작품을 통해 표출한 것이다.

Ⅲ. 조선 사회의 제도적 모순

인간의 재능보다 신분질서가 우선하는 시대에서 재능있는 인간과 부조리한 사회현실과의 대립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였다. 결국은 일방적으로 패배하는 쪽으로 귀결되지만, 사회에 대한 저항의식을 보여주며, 사회현실에 대해 끊임없이 갈등하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 조선조의 전시기를 통하여 부단히 시정의 요구가 제기되어 온 폐해중 하나가 '서얼금고법'이다. 서얼금고법에 대한 시정은 서얼뿐만 아니라, 사대부 식자층에서도 부단히 제기된 문제이다. 특히 허균의 경우, 서얼차별에 의해 많은 인재들의 능력이 死藏되고 등용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현실을 작품을 통해 비판하였다. 신분제도의 폐해와 인재등용의 모순에 대해, 「손곡산인전」과 「엄처사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적서차별제도와 「손곡산인전」

1) 서얼금고의 폐해

먼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분제도, 특히 적서차별의 문제이다. 이 부분은 조선초기부터 그 해악이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조선후기 고종 때에 와서야 공식적으로 정리되었다.[34]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가 짙게 내포된 이 악습은 조선을 지탱하고 있는 신분사회와도 연관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비판은 사회 그 자체에 대한 저항이고 기존 질서를 흔드는 일이었다.

이 적서차별법은 과부의 재가금지법과 함께 사대부들의 위선과 치부를 드러내는 모순되고 불합리한 제도로써 그것이 폐지된 甲午更張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한 조선조의 대표적 악법의 하나였다. 당시의 신분제도는 매우 엄격하게 兩班, 中庶, 良人, 賤人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中庶는 中人과 庶孼을 통칭한 말이다. 이들은 법규로써 限品敍用의 제한이 가해져 미관말직에 임용될 수 있을 뿐이었다.

---

34) 이 적서차별에 대한 구체적 실상은 이상백, 「서얼금고 始末」(『동방학지』1, 연세대학교, 1954)에 상세히 논의되었으며, 법적인 효력이 말소된 내력은 『高宗實錄』31, 甲午六月二八日條의 '進義案'에 자세히 나와 있다.

서얼은 주로 양반의 서얼을 지칭하는 말이다. 상민의 경우에는 양반만큼 축첩이 흔치 않았고, 첩이 있는 경우에 양첩자는 일반상민으로, 천첩자는 천첩소유자의 노비로 신분이 귀속되었기 때문에 양반서얼과 같은 범주의 문제는 사실상 없었다. 그러니 서얼의 신분적 지위는 일반상민보다는 우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현저한 지위불일치를 경험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서얼은 양반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아들로 취급되지 않았고, 적자가 없는 양반집안의 가계계승은 서자로 하지 않고 친족집단내의 양자를 들여 계승시켰기 때문이다. 유교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봉건적 계급 사상과 귀천사상이 높아지면서 조선 전기 서얼은 사족의 혈통과 良賤人의 혈통을 섞어 받은 중간 신분층으로서 '半士' 또는 '逸名'이라고 불리며, 가문안이나 사회에서 극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요컨대 그는 경계인이었다.[35]

정조가 서얼들에게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꾸준한 서얼들의 건의에 의해 여러 선대 왕들의 실행이 미흡한것을 알고 실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서얼차별이 있었는지 또 그것이 왜 철폐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서얼차별법인 서얼 금고법은 조선시대 양반의 자손이더라도 첩의 소생은 관직에 나아갈 수 없게 한 제도이다. 서얼차별의 연원에 대하여는 태종 15(1415)년에 庶類 정도전에게 私感을 가진 徐選의 상소를 태종이 받아들인 것이 통설이다.

> "우부대언 徐選 등 6인이 종친과 각 품 관리의 庶子孫을 현관에 임용하지 않으므로써 적처와 첩의 분별을 할 것을 진언했고, 의론을 거쳐 진언한 대로 시행되었다.[36]

이 제도는 태종 15(1415)년 6월에 徐選이 태종의 특정한 인물에 대한 경계심을 살펴 종친 및 각 품의 서얼 자손은 현관의 직사를 맡기지 말자고 건의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 몇 가지 형태의 차별이 가해지던 끝에 『경국대전』편찬 이후로 금고의 제대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서얼에 대한 차별의 규정은 경국대전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첫째, 예전 제과조에 죄를 범해 평생 임용할 수 없게 된 자, 장리의 아들, 재가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아들 및 손자 등과 함께 문과, 생원·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35) 고종석, 『서얼단상』, 개마고원, 2010, 130면 참조.
36) 구자균, 『조선평민문학사』, 민학사, 1984, 24면 참조.

둘째, 이전 한품서용조에 문·무 2품 이상의 양첩 자손은 정 3품, 천첩 자손은 정 5품에 한하고, 6품 이상의 양첩자손은 정 4품, 천첩 자손은 정 6품에 한하며, 7품 이하 관직이 없는 사람까지의 양첩 자손은 정 5품, 천첩 자손은 정 7품에, 양첩자의 천첩자손은 정 8품에 각각 한정해 서용한다고 한 것 등이다. 이 두 규정은 같은 차별의식의 소산이나 성립의 내력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제정된 시기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앞섰다.

서얼에 대한 한품 규정의 동기는 기술관에 대한 것과 거의 비슷하였다. 그러나 그 내력과 경위는 훨씬 더 복잡하였다. 고려시대는 상급 신분층 사이에 대체로 일부일처제가 준행되었으나, 말기에 접어들면서 처를 여러 명 거느리는 풍습이 유행하였다. 이 변화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몽고풍습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구 증식 정책이 강구되는 가운데 多産의 미덕으로 치부되는 분위기에서 풍습이 달라진 것 같다. 이러한 풍조는 조선왕조 성립 후 사회질서가 전반적으로 갱신되는 가운데 여러 처의 소생간 상속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심각한 문제로 부수되어 유교적인 일처주의 기준 아래 제재를 받았다.

일처주의는 한사람의 처 외에는 모두 첩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다처간의 적·첩 구별의 분쟁은 대단히 심각했으며, 그 분쟁의 치열함 속에서 첩에 대한 적대 관념이 이미 필요이상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더해 처음부터 첩으로 맞아들여진 자 가운데 신분이 천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첩 및 그 소생에 대한 차별 의식 조장을 결정짓게 하였다.

고려말 이래 多妻 풍조 아래서 처음부터 첩으로 맞아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 경우 신분이 양인인 양첩도 있었지만, 신분이 천인인 천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기 소유의 婢를 첩으로 들이는 경우가 태반으로, 첩과 그 소생에 대한 천시 관념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크다고 여겨진다.

천첩소생에 대한 처우는 양천제의 신분 규정의 적용상으로도 문제가 되었다. 고려 시대의 관행에 따르면, 아버지가 양반이라도 어머니가 노비 신분이면 그 소생의 신분은 종모법의 원칙에 따라 노비, 곧 천인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서는 국가의 역을 담당할 인력의 확대를 목적으로 공·사비 신분으로 양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소생은 아버지 신분을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이른바 종부법이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태종 14(1414)년에 채택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양반의 천첩 소생이 양인이 되는 것은 확실해졌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강구되기 시작하였다. 종부법의 적용으로 양인신분을 허용하더라도 천인 소생에 대한 차별관념은 그대로 남아, 양

인으로서의 활동에 일정한 제재가 가해졌다. 즉 양인남자면 누구나 담당해야 하는 군역의 의무가 보충군이라는 특별한 병종에 일정한 기간 복무할 것이 요구되고, 한품 서용의 규정을 마련해 이 군역을 치른 뒤에 밟게 되는 벼슬길에 제한을 주었다.

과거 응시자격의 박탈에 대한 규정의 제정 시기는 기록상 확실하지 않다. 단지 같은 제재의 대상인 재가실행 부녀의 자손에 대한 차별의 논의가 성종 8(1477)년에 있었으므로, 대개 이 전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전부터 있었던 한품서용의 규정도 그 대상직을 잡직으로 한정해 서얼이 좋은 관직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렇지만 이 응시자격의 박탈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으로 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서얼출신인 魚叔權은 『稗官雜記』에서 서얼에게 아예 벼슬에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경국대전』 편찬 후 라고 지적하였다. 어숙권이 살던 시대에 만들어진 『경국대전주해』에도 그러한 강화된 차별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서얼자손에 대한 법의 적용이 자자손손으로 해석되고, 서얼 자체에 대한 해석도 양첩산은 서, 천첩산은 얼이라고 구분하는 설명을 제시하였다. 특히, 얼은 죄를 범해 몰패된 여자가 요행히 고귀한 남자를 만나 자식을 낳으면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는 것과 같다는 뜻이라고 하여 차별 의식이 당시 대단히 경색화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경국대전주해』가 만들어진 시기를 전후해서 서얼 출신의 명사는 적지 않았다. 어숙권을 비롯해 조신·송익필·양사언·양대박 등 도학·행의·문장·충의 등에 뛰어난 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인재활용이라는 면에서 서얼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조정에서도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중종대에 조광조가 이미 통용을 제안했다는 것이 후대의 허통론자들의 통설로 인식되었다. 명종대에는 서얼들 스스로 '양첩손에게 문무과의 응시를 허용하라'는 소를 올렸다. 선조 즉위년(1567)에도 서얼 1600여명이 허통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선조 16(1583)년에 이탕개의 난이 일어났을 때 병조판서 이이는 난을 평정할 인력확보책의 하나로, 서얼출신으로서 6진 일대의 근무를 지원하는 자는 3년 만에 허통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직접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진왜란 중에 재정난 타개의 한 방법으로 쌀을 받고 허통해 주거나 전공에 대한 포상으로 허통해주는 예를 낳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차별은 여전히 심해 광해군 때 '七庶之獄'이라 하여 박응서, 심우영, 서양갑 등 서얼 출신 7인이 관련된 역모혐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하였다.

近代 前에는 어느 국가에서나 신분제도가 지배계층의 권익을 위해 이용되었다. 이 신분제도는 계급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과 미움을 일으켰으며, 하층계급

은 언제나 억눌림과 수탈을 당해야 했다. 조선조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였고, 혹독한 제도는 더욱 민생의 어려움과 불만의 요소로 대두 된 것이다.

서얼제도라는 차별의식은 외국과 비교해 볼 때 특이한 존재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계층은 대체로 士, 民, 奴婢로 삼분할 수 있다. 서얼들은 士지위에 속하면서도 단지 妾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혹심한 차대를 받아왔던 것이다. 이 서얼은 고려 말기부터 싹트기 시작한 유교의 적서명분론에 근거하여, 서자에 대한 일종의 반감과 천시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7]

이 경향은 고려 단종 5(1039)년에 노비의 신분은 그 母에 따른다는 법령을 세운데서 시작된다. 곧 古來로부터 내려오던 수모풍습에다 유교적 귀천의식과 계급사상이 결부되어, 이러한 서얼금고와 같은 사상적인 연원을 둔 것이다.

『고려사』에 보면 "五逆, 五賤과 不忠, 불효한 자와 향과 부곡의 악공 잡류의 자손들에게는 과거보는 것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하여, 서얼에 관한 제한은 없었다. 이것이 조선왕조로 넘어오자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신분을 확립시킬 때, 지배자의 계급의식은 더욱 발동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유교의 예학을 중심한, 특히 가족제도를 규정한 종법사상에 연유하고 있으니, 유교사상의 중심점은 역시 도덕적 계급제도이며, 治者는 후덕한 사람이 되고, 학덕이 부족한 사람은 피지배자가 되어 治者를 받들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 대인의 일이 있고, 소인의 일이 있으니…그러므로 말하기를 혹은 마음으로 일하고 혹은 힘으로써 일하니, 마음으로 일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으로 일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려진다. 남에게 다스려지는 자는 남을 먹이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게 얻어먹음이 천하의 통의이다.[38]

경전의 한 구절이 조선의 새로운 제도 확립에 포함되어 장차 그들의 적서차별을 하는 좋은 구실이 되었고, 지배자의 권력 유지에 대한 확고한 터전을 삼을 수 있었으며, 하층민의 반항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계급차별은 인권이 평등하지 못한 봉건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는 하나, 조선조에서는 계급차별이 더욱 심했을 뿐만 아니라 庶類들에 대한 차별은 유독 심하였다. "당시 사회제도의 적서문제는 일부다처를 공인하면서도 한편으로 처첩과 그의 소

---

37) 이상백, 「서얼금고 始末」, 『동방학지』1호, 연세대학교, 1954, 167면 참조.

38) "有大人之事, 有小人之事,…故曰 或勞心或勞力, 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 治於人者食人, 治人者食於人, 天下之通義也."(『孟子』「滕文公章句上」)

생인 적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였다. 이 서얼차별대우는 태종 15(1415)년 徐選의 進信으로 실현된 '庶孼禁錮'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니, 그 이전까지는 일부일처의 사상이나 일처중첩의 규정이 없는 가족상태 였으므로 특수한 婢妾·妓妾이외는 처첩의 구분이 二妾·三妾의 사실이 허다하며 後娶·再娶에 이르러서는 嫡子·庶子의 분간이 判然하지 않았다."[39] 이런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서얼들의 숫자는 점차 많아졌고 또 수효에 비례해서 불만도 높아졌다. 일부다처의 가족제도 아래에서 서류의 수효가 훨씬 많았을 것이 짐작이 간다.

이들이 사회불평등 계급을 이루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조광조·이이·성혼·조헌 등이 상소하여 서얼금고의 철폐를 주장했으나 끝내 허통되지 않고, 다만 임진왜란으로 나라의 정세가 위급해지자 서얼들에게 과거를 볼 자격을 주고 벼슬자리도 주었으나 임진왜란이 끝나자 다시 이를 철폐하고 법은 더욱 엄격해졌다.

모순된 사회제도로 인한 내적인 갈등은 신분제의 동요는 물론 사회전반적인 변화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 문제는 허균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 이후 양식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적되고, 그 개선을 주장하였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문제점이 허균에 오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 즉 傳창작의 방법을 통하여 광범위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그 실상을 알리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허균은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조선의 신분제인 적서차별을 심각하게 생각하였다. 그는 「遺才論」에서 "하늘이 인재를 태어나게 함은 본래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해서였다"[40]라고 했다. 이는 李贄가 『焚書』에서 "대저 하늘이 한 사람을 낳음에 절로 한 사람의 쓰임을 두게 마련이다"[41]라고 하여, 인간의 평등과 존엄을 역설한 것과 상통한다. 허균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고귀한 집안출신이라 해서 재능을 풍부하게 부여해 주지 않았고, 미천한 집안 출신이라 해서 재능을 인색하게 부여해 주지 않았다고 했다.[42]

허균은 인재부족의 해결책을 서얼출신의 사회진출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말하기를 "서얼출신이어서 어진 인재를 버려두고 어미가 개가했다고 그의 재능을

---

39) 『韓國史』6, 近世前期篇, 震檀學會, 을유문화사, 330면 참조.

40) "天之生才, 原爲一代之用."(許筠, 「遺才論」, 『惺所覆瓿藁』권11; 『國譯 惺所覆瓿藁』권2, 민족문화추진회, 민문고, 1989, 190면). 이하 『惺所覆瓿藁』 인용은 모두 『國譯 惺所覆瓿藁』, 민족문화추진회의 번역을 인용한다.

41) "夫天生一人, 自有一人之用."(李贄, 「答耿中丞」, 『焚書』1)

42) "其生之也, 不以貴望而豊其賦, 不以側陋而嗇其稟."(許筠, 「遺才論」, 『國譯 惺所覆瓿藁』2, 190면)

쓰지 않는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43]라고 했다. 그러나 조선은 모계가 천하거나 개가하면 그 자손은 모두 서얼이라 하여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었다. 여기서 허균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신분이 모계로부터 결정되는 구조의 타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여기서 우리는 허균의 인재 평등사상을 읽어 낼 수 있다. 허균의 이러한 사상은 창작실천으로 이어졌다. 그는 재능은 있으나 신분의 제약으로 인해 불우한 삶을 살아간 사람에 대한 전기를 지었는데, 그게 바로 「손곡산인전」이다. 여기에서 손곡은 허균의 스승인 '이달'을 말하는 것이다. 이달에 대한 허균의 생각을 집약한 글로써, 이 글은 스승의 전기적 차원을 넘어서 스승을 통한 자신의 생각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당시의 '서얼'들에 대한 허균의 생각을 대표하고 있다.

2) 신분제도의 모순

16~17세기는 엄격한 신분제도사회였으며, 따라서 인간존재의 인식에 한계를 드러낸 사회였다. 신분의 귀천이 엄격히 존재했으며 천민의 수직적 상승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다. 조선 말기 경제 체제의 변동에 따른 계층이동이 있기 전까지는 이러한 제도적 모순은 더욱 경직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가치관념을 천민의 세계로까지 확대시키려는 노력은 분명히 시대에 역행하는 모험적 행위였다. 그러나 허균은 문학을 통하여 이런 모험을 감행한 인물이었다. 그는 천민이나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들을 기꺼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그러나 이들이 작품의 주인공이 됐다고 해서 당장 그들의 현실적 삶이 개선되거나 존재적 가치가 고양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늘속에 묻혀있던 이들의 삶의 양태를 만천하에 드러냄으로써 그들을 보편적 인간의 삶 속에 끼어들 수 있게 했거나, 그들의 존재적 가치를 부상시키는데 일조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허균이 자신의 작품속에 등장시킨 특수한 인물군은 허균의 문학을 재평가 하는데 중요한 지침을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허균이 자신의 작품속에서 다룬 인물군이 당시 사회의 어떤 계층의 사람들인가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 인간과의 만남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허균의 경우가 그렇다. 허균의 삶의 역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바로 손곡 이달과의 만남이다. 만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만남의 구체적인 양상을 규명하기에 앞서 손곡 이달에 대하여 소략적으로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44]

---

43) "未聞有孽出, 而棄其賢, 母改適, 而不用其才者."(許筠, 「遺才論」, 前揭書, 191면)

이달은 중종 34(1539)년에 나서 광해군 4(1612)년까지 살다간 16~17세기의 대표적인 시인이다. 자는 益之이며, 호는 蓀谷이다. 본관은 원주이며, 李詹의 후손이다. 그는 洪州 李氏의 시조 李維成의 13세손인 李秀咸의 서자로 태어났다. 朴淳의 문인으로서 일찍부터 문장에 능하여 선조 때 한리학관이 되었으나 곧 사퇴한 바가 있다. 그리고 東門 최경창, 백광훈과 함께 唐詩를 잘하였기 때문에 '三唐'이라고 불리었고, 또한 글씨에도 조예가 깊었다.

삼당시인의 한사람으로서 비범한 文才를 가졌으며 당풍의 시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르기 어려울 정도로 제일인자였지만, 서얼이라는 신분상의 불리한 조건 때문에 초야에 묻혀서 생애를 보내며 한 많은 일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다. 이달은 조선의 이태백과 같은 존재로, 천하의 시인으로 이름을 떨쳤다. 하지만 그에게도 뼈에 사무친 한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서얼금고였다.

『경국대전』(1471)에 "서얼 자손은 문과와 생원진사과에 응시할 수 없다."라는 이른바 '서얼금고'조항이 삽입되게 되었다. 나아가 『경국대전주해』(1555년 반포)에서 서얼금고 조항의 '庶孼子孫'을 '子子孫孫'으로 규정함으로써, 서얼 신분은 그 당대에 그치지 않고 그 자손에게 대대로 계승되는 신분범주로 굳어지게 되었다.[45] 이 역사상 손꼽히는 악법 때문에 능히 일국을 다스릴 만한 인재들도, 평생 시나 짓고 초야에서 초라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되었으니, 이달의 한도 여기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달이 생애를 보낸 명종~선조 연간은 정치적으로 훈구세력과 사림세력간의 갈등이 사화로 나타난 뒤, 다시 사림파 내부에서 신·구세력의 대립으로 마침내 동서분당의 당쟁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사회상으로 보면 조선은 사회적으로 엄격한 신분사회로서 적서차별이 극심했다. 조선시대의 신분계급은 대체로 양반·중인·양인·천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첩의 자손은 서얼이라 하여 차별대우를 받았고, 관료로 등용되더라도 품계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적 능력이 뛰어난 이달과 같은 서얼들은 벼슬길에 있어서만 제약을 받았을 뿐, 당시 최고의 지식층에까지도 문화적·정신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상당한 대우까지 받았다. 이달은 영의정까지 지낸 박순과 당시 詩文의 명가인 정사룡에게 師事하였고, 허봉과 허난설헌 그리고 허균 세 남매에게 시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달의 생애나 행적 등을 알 수 있는 기록은 별로 남아있지 않다. 그나마 가장

---

44) 「蓀谷 李達 硏究」, 『원주학술총서』3, 원주시에서 2006년에 발행된 책의 허경진 편을 보면 손곡 이달의 생애에 대하여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다.

45) 고종석, 『서얼단상』, 개마고원, 2010, 130면 참조.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 사람은 그의 제자 허균으로서, 그는 스승의 유작들을 수집하여 시문집인 『蓀谷集』을 편찬하였고, 그의 저서인 『성수시화』와 『학산초담』에도 스승 이달의 일화와 시에 대한 많은 언급을 하였다. 그 외에도 그의 문집에 이달이 자주 등장한다.[46] 허균은 이달로부터 사상적, 학문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능력은 있었지만 시대에 소외된 지식인 손곡 이달을 傳으로 지어, 불우한 인물의 眞情性을 대변해 보려 하였다.

허균과 이달의 첫 만남 장면은 홍만종의 『소화시평』에 보인다.[47] 이달이 젊은 시절에 허균의 형인 허봉과 친했는데 하루는 허봉의 집을 방문하였다. 때마침 허균이 허봉을 찾아왔다가 이달을 보고서 예우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태연자약하게 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허봉이 말하기를 "시인이 자리에 계시는데 아우는 그래 소문도 듣지 못했는가? 내 아우를 위해 시 한수를 부탁드리겠소!" 그가 운자를 부르자 이달은 운이 떨어지자마자 절구 한수를 지었는데 그 낙구는 이러하였다.

墻角小梅開落盡	담모퉁이 작은 매화 피었다가 져버린 뒤
春心移上杏花枝	봄 신명은 살구꽃 가지 위로 옮겨가네.[48]

이를 보고 허균이 깜짝 놀라 얼굴빛을 바꾸며 사죄하고 이후로 시 벗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달은 허균에 의해 유고집이 출판되었다. 허균의 「손곡산인전」을 중심으로 이달의 삶과 문학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손곡산인전」은 허균에게 시를 가르친 스승 이달에 대한 인물전이다. 허균이 젊었을때 형인 허봉의 소개로 누이 허난설헌과 함께 이달에게 시를 배웠다. 그러므로 허균과 이달은 사제지간이다. 허균은 손곡의 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그의 시는 이백에 근본을 두었고 왕유와 유장경을 드나들어 기운이 다사롭고 지취가 뛰어나며, 빛이 곱고 말이 담담하며, 그 곱기는 南威와 西施가 盛服하고 밝은 화장을 한 듯하고, 그 온화함은 봄볕이 온갖 풀을 덮는 듯하며, 그 맑음은 서리같은 물줄기가 큰 골짜기를 씻어 흐르는 듯하고, 그 음향이 맑게 퍼져가는 것은 마치 높은 하늘에서

46) 이달의 생애에 대해서는 전관수, 「이달의 시세계와 형상화 방식 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를 참조하였다.
47) 안대회, 『대교역주 소화시평』, 국학자료원, 1995, 209~210면 참조.
48) "曲闌晴日坐多時, 閉却重門不賦詩. 墻角小梅開落盡, 春心移上杏花枝."(李達, 「小梅」, 『蓀谷詩集』2)

학 타고 피리부는 신선이 오색구름 밖을 떠도는 듯하며, 끌어당기면 노을빛 비단과 미풍의 잔물결 같고, 깔아놓으면 구슬이 앉고 옥이 달리며 두드리고, 갈면 비파의 애절함과 구슬의 울림이요, 억제하고 누르면 천리마가 멈추고 용이 움츠렸고, 그 일없는 때에 천천히 걸음은 평탄한 물결이 넘실넘실하여 천리를 흘러가는 듯하며, 태산의 구름이 바위에 대질러 흰 옷도 되고 푸른 개도 되어, 현종·대종 사이에 놓아도 王維와 岑參의 대열에서 멀리 기울지 않으며, 우리나라 이름난 많은 작가들과 비교하면 그들 또한 눈이 휘둥그레져 90리나 물러설 것이다.[49]

이는 허균이 쓴 「蓀谷集序」의 내용이다. 이달의 시가 지니는 志趣를 드러낸 것이다. 많은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이달시의 뛰어남을 칭찬하였다. 이달의 시가 뛰어남은 당대의 시풍과는 다른 唐風이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이달은 처음에는 두보와 소동파의 詩를 鄭士龍(1491～1570)에게서 배웠다고 한다. 그러다 唐詩를 익혀 여타의 많은 작가들과 비교하면 그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90리나 물러설 정도로 훌륭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지나칠 정도의 칭찬일색이다. 그러나 이것이 시선집의 서문이고, 제자가 스승의 시를 평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다.[50]

傳이라는 양식의 특성상 입전자의 행적을 모두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허균은 이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선 허균이 이달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자신에게 시를 가르쳐준 스승이라는 측면이다. 이와 더불어 성장하면서는 자신과 시문관이 다른 입장을 견지하는 당대를 대표하는 시인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하였다. 그렇다면 허균은 이달을 작품에 입전하고자 한 내용이 무엇인지 「손곡산인전」의 입전의식을 알아보도록 하자.

허균은 이달의 학문에 대한 노력과 그 결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달은 매우 박학다식했다. 허균은 그를 입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49) “其詩本源供奉, 而出入乎右丞, 隨州氣溫趣逸, 芒麗語澹, 其艶也若南威, 西子袨服而明粧, 其和也若春陽之被百卉, 其淸也若霜流之洗巨壑, 其響亮也若九霄笙鶴彷, 像乎五雲之表, 引之霞綺風淪, 鋪之璧坐璣馳, 鏗而厲之, 則瑟悲而球戛, 抑而按之則驥頓龍蟄, 徐行其所無事, 則平波滔滔然千里朝宗, 而泰山之雲觸石爲白衣蒼狗, 置在開·天大曆間, 瑕不廁王·岑之列, 而較諸國朝諸名家, 其亦瞠乎退三舍矣.”(許筠, 「蓀谷集序」, 『國譯 惺所覆瓿藁』2, 73면)

50) 李達 詩의 풍격에 대해서는 허균이 쓴 「蓀谷集序」에서 가장 자세하다. 송준호는 「蓀谷 李達詩硏究」(『동방학지』6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9)에서 허균이 「蓀谷集序」에서 제시한 李達의 풍격을 근거로 하여 ‘艶’, ‘和’, ‘淸’, ‘響亮’ 등 다양한 풍격에 대하여 설명하고 詩를 들어 예증하였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읽지 않은 책이 없었고, 지은 글도 무척 많았다.…손곡이 처음에는 소식의 시법을 배워 한번 문득 붓을 잡으면 농섬하여 읊기에 좋은 시들을 지었다."[51]

이는 唐詩를 익히기 전에 이달의 학문과 시의 경향을 말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朴淳으로부터 詩道는 마땅히 唐詩로 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말을 들었다.[52] 이달은 이후로 당시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허균은 그의 당시 학습과정이 남달랐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文選』과 이태백 및 盛唐의 十二家·劉隨州·韋左史와 伯謙의 『唐音』까지를 꺼내서 문을 닫고 외었다. 밤이면 날을 새운 적도 있었고, 온종일 무릎을 자리에서 떼지 않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5년을 지내자 어렴풋이 깨우쳐짐이 있었다. 시험 삼아 시를 지었더니 어휘가 무척 청절하여 옛날의 수법은 완전히 씻어 졌었다. 그리하여 당 나라 여러 시인들의 詩體를 본받아 장편·단편 및 율시·절구를 지어냈다.[53]

이달의 당시 학습과정을 말한 것이다. 날을 새거나 온 종일 무릎을 떼지 않는 노력으로 당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또 지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었다고 적고 있다. 곧 허균은 후대에 이름이 길이 전해질 시인은 이같은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짐을 보여 주려 했던 것이다.

또 허균은 당대를 대표하는 시인의 숭고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달은 숙명적으로 당대사회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다. 그가 서얼이라는 것은,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씌여진 굴레이다. 그에게 가해진 서얼금고라는 신분제약은 그가 당대사회와 대립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달은 결코 평범하지 않고, 당대사회에서 큰 능력자가 될 수 있을 만큼 詩的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이 큰 것과는 반비례하게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당대 사회의 모순은 더욱 더 크게 부각된다. 그가 능력자라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

---

51) "達少時, 於書無所不讀.…達方法蘇長公, 得其髓一操筆輒寫數百篇, 皆穠贍可詠."(許筠, 「蓀谷山人傳」, 前揭書, 121면)

52) "一日思菴相謂達曰, 道當以爲唐爲正. 子瞻雖豪放, 已落第二義也. 遂抽架上太白樂府歌吟, 王孟近體以示之."(許筠, 「蓀谷山人傳」, 前揭書, 122면)

53) "取文選太白及盛唐十二家·劉隨州·韋左史暨伯謙唐音, 伏而誦之. 夜以繼晷, 膝不離坐席. 凡五年, 悅然若有悟, 試發之詩, 則語甚淸切, 一洗舊日熊. 卽倣諸家體而作長·短篇及律絶句."(許筠, 「蓀谷山人傳」, 前揭書, 122면)

게 더욱 불행일 수밖에 없다.

> 이달은 이 때문에 이름이 우리나라에 울렸고, 귀하게 여겨져 그의 신분은 놓아두고도 칭찬해 마지않는 분들로 詩文에 뛰어난 3~4명의 거장들이 있었다. 그러나 속인들 중에는 증오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줄줄이 이어 있어, 여러 번 더러운 누명을 덮어씌우며 형벌의 그물에 밀어 넣었지만 끝내 죽게 하거나 그의 명성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54]

이 부분은 이달에 대한 당대인의 평가로 천부적인 시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한계 때문에 다른 이들의 비방과 질시를 받았던 이달의 모습을 나타냈다. 이달이 비방과 질시를 받았던 것은 그의 남다른 재주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목숨이나 명성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 그는 당시 문단에서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달이 지닌 숭고미였으며 허균은 이를 입전하고자 하였다.

허균은 『鶴山樵談』에서 "요즘 중국인의 문학은 西京의 詩祖인 두보를 숭상하기 때문에 두보의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른바 고니를 새기다가 집오리를 만드는 셈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문장은 三蘇를, 시는 황정견과 진사도를 배우므로 저속하여 취할게 없다. 시를 잘한 최경창·백광훈·임제·허봉은 모두 일찍 죽고, 다만 익지 한 사람이 있을 뿐인데 익지는 비방이 산더미 같으니, 세상이 너무도 재주를 아끼지 않는다."[55]라고 하였다. 또한 이달은 세속을 초탈한 삶을 살면서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 그는 古今의 이야기를 잘했으며, 산수가 아름다운 곳에 이르면 술을 즐겨 마셨다. 왕희지에 가깝도록 글씨도 잘 썼다. 그의 마음은 툭 트여 한계가 없었고, 먹고 사는 생업에는 종사하지 않아서 사람들 중에는 이 때문에 더 그를 좋아하는 이도 있었다. 평생 동안 몸을 붙일 곳도 없어 사방으로 流離하며 乞食까지 했으니, 사람들이 대부분 천하게 여겼다. 그렇지만 궁색한 액운으로 늙어갔음은, 말할 나위도 없이, 그가 시 짓는 일에만 몰두했던 탓이었다. 그러나 그의 몸이야 곤궁했어도 불후의 명시를 남겼으니 한때의 부귀로 어떻게 그와 같은 명예를 바꿀 수 있으랴![56]

---

54) "達以是名動東國, 貴之而捨其爲人, 稱譽不替者, 詞林三四鉅公也. 而俗人之憎嫉者, 比肩林立, 屢加以汚衊, 寘之刑網, 卒莫能殺而奪其名也."(許筠, 「蓀谷山人傳」, 前揭書, 123면)

55) "工詩者崔白林許, 皆早昇世, 今只有一李益之, 而積謗如山, 其不愛才如此."(許筠, 「鶴山樵談」, 『國譯 惺所覆瓿藁』3, 280면)

56) "善談今古, 及山水佳致, 喜酒能晉人書. 其中空洞無封畛, 不事産業, 人或以此愛之. 平生無着身

이달은 평생동안 몸을 붙일 곳이 없어 사방으로 떠다니면서 걸식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를 천하게 여겼다. 그가 궁색하게 한 평생을 마치게 된 것은 시 짓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는 불후의 명시를 남겼다. 이는 한 때의 부귀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뛰어난 시적 재능을 지니고도 불우한 생을 마쳤다. 그리고 허균의 스승이다. 이것이 이달을 입전한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 외사씨(外史氏)는 논한다. 태사 주지번은 일찍이 이달의 시를 보았다. '漫浪舞歌'라는 시를 읽고서는 擊節嗟賞하면서, "이 작품이 이태백의 시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했으며, 석주 권필도 이달의 '斑竹怨'이라는 시를 보고서, "이백의 시집 속에 넣어도, 안목 갖춘 사람일망정 판별하기 쉽지 않으리라."했었다. 이 두 사람이 어찌 망언을 할 사람이겠는가. 슬프다. 달의 시야말로 진실로 기특했었다.[57]

이 부분은 허균의 논평이다. 그는 이달의 고시 두 편을 대표작으로 들면서 당대 대표적 시인으로 이름난 명나라의 주지번과 조선의 권필의 평을 빌려 이달 시의 신기함에 대해 반증하였다. 권필은 「斑竹怨」에 대해, 주지번은 「漫浪舞歌」를 꼽았는데 모두 다 盛唐시대의 이백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하였다. 이는 이백 시에서 보이는 호방한 자유정신과 낭만성이 바로 이달이 진정으로 추구했던 시적 경지의 이상으로 설정하였다고 허균은 보았던 것이다.

허균은 이달이란 인물을 입전하면서 현실적 사실 기록 이외에 별다른 기사나 신기한 기적 같은 내용을 구성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엮어 놓았다. 당시 이달은 삼당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풍의 시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르기 어려울 정도로 제일인자였지만, 서얼이라는 신분상의 불리한 조건 때문에 한 많은 일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다. 허균은 능력은 있었지만 시대에 소외된 부류의 대표적 인사로 이달을 들고 傳으로 지어 시대에 용납되지 못했던 인물들의 진정성을 대변해 보려 한 것이다.

地, 流離乞食於四方, 人多賤之. 窮厄以老, 信乎坐其詩也. 然其身困而不朽者存, 豈肯以一時富貴易此名也?"(許筠, 「蓀谷山人傳」, 『國譯 惺所覆瓿藁』2, 123면)

57) "外史氏曰, 朱太史之蓄嘗觀達詩, 讀至漫浪舞歌, 擊節嗟嘗曰, 斯作去太白亦何遠乎. 權石洲韡見其斑竹怨曰, 置之靑蓮集中, 具眼者不易辨也. 此二人者, 豈妄言者耶. 噫! 達之詩, 信奇矣哉."(許筠, 「蓀谷山人傳」, 『國譯 惺所覆瓿藁』2, 124면)

2. 과거제도와 「엄처사전」

1) 인재등용의 문제

나라를 잘 운영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일찍이 공자도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부정하고 무능한 인물을 물리치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58]라는 가르침을 당시 제후들에게 기회 있을 때 마다 말하였다. 그래서 예로부터 뜻있는 위정자들은 훌륭한 인재를 얻기 위해 삼고초려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신라시대에도 독서삼품과 같은 인재등용책을 두어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고려시대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과거제도를 시행하였던 것이다. 사회에 쓰일 인재를 올바로 등용해 쓰는 일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관련있는 중대사로서, 올바른 인재등용책의 시행여부는 국가의 도덕성과 통치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조선왕조도 국초부터 이 점에 유의하여 과거의 부정을 엄하게 단속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인사정책을 펴나갔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국가기강이 문란해지자 과거제도도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못하게 되었고, 정치가 점차 벌열화·파당화 되어가자 인재등용도 불합리한 연고주의에 젖어들게 되었다.

과거제도는 그것에 선행하여 존재하였던 또는 그것과 병행 실시된 다른 관리채용제도, 예컨대 세습제나 추천제 또는 문음제와 달리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능력을 위주로 하여 관리후보자를 선발한다는 원칙하에 공개경쟁의 시험절차를 통해서 능력을 평가하고 그렇게 평가한 능력을 거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선발기분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관리채용제도로서의 과거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운영의 기본방침으로서 문호개방·기회균등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었다는 점이다. 과거의 목적이 능력을 위주로 하여 관리 후보자를 뽑으려는 데에 있는 이상 그러한 기본방침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물론 실제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정신이 기조가 되었다. 즉 누구라도 신분상에 하자만 없으면 그의 사회계층적 신분이나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평등한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그 문호를 개방하고 응시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시험을 관리한다는 것이 과거운영의 기본방침이었다.

---

58) "擧直錯諸枉則民服, 擧枉錯諸直則民不服."(『論語』「爲政」)

그러나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문벌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과거급제와 관직을 차지하기 위하여 양반들은 가문을 걸고 붕당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었고, 이들 사이에는 치열한 정치적 대립이 첨예화되어 조선왕조의 문벌정치는 갈수록 폐쇄성을 드러내게 되었다.[59]

고려 광종때부터 조선 고종때까지 936년 간의 긴 세월을 두고 과거로 말미암아 지식은 실속없이 겉치레만 화려하게 천박해졌다. 또한 학문은 모리와 투기의 도구로 변하고, 세상의 도리는 협잡과 부정으로 변하였으며, 인재등용은 공평성을 잃었다. 『增補文獻備考』「選擧考」에 보면, 임진왜란 이후의 인물들이 과거제도에 대해 촌평한 것을 볼 수 있다. 과거제도는 초기 의도와는 달리 후기로 올수록 폐해가 심해졌으며 그로 인하여 과거부정도 심해졌고, 자격과 실력이 없는 자가 영예의 자리에 오르는 반면, 학문이 깊고 실력이 높은 인사는 과거제도를 천시하여 재야에 묻혀있게 되는 등 과거의 근본목적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과거제도가 인재를 얻으려는 근본목적은 갖고 있었으나, 조선조 말기로 올수록 부정과 부패, 문벌주의 등 폐단이 나타나고 利를 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근본을 잃어버렸다. 허균이 활동했던 당대와 인재의 쓰임에 관해서 편협성을 지적할 수 있다. 허균은 인재의 등용에 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 "이조에 들어와서는 사람을 쓰는 길이 좁아서, 대대로 명망이 있는 집안이 아니면 仕路를 얻기 어려웠으며, 암혈과 초목 속의 선비가 비록 기이한 재주가 있어도 벼슬에는 눌리어 쓰이지 않았다. 그리고 科目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덕업이 성하고 나타난 자라도 끝내는 卿相에는 오를 수 없었다."[60]

아무리 뛰어난 재주와 학식이 높아도 문벌과 신분이 나쁘면 仕路에 막혀 立身하지 못한다고 개탄하였다. 이는 하늘이 내린 재주를 治者가 어두워 쓰지 않았으니, 이것을 두고 逆天者는 망하고 順天者는 興한다고 한 것이 아닐까?[61]

> "하늘이 낳아 주었는데 사람이 그 인재를 버림은 하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며, 하늘의 뜻에 거역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하늘에 비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

59) 이성무, 『조선양반사회연구』, 일조각, 1995, 100면 참조.

60) "入我朝, 用人之途尤狹, 非世胄華望, 不得通顯仕, 而巖穴草茆之士, 則雖有奇才, 抑鬱而不之用. 非科目進身, 不得躡高位, 而雖德業茂著者, 終不躋卿相."(許筠, 「遺才論」, 『國譯 惺所覆瓿藁』2, 190면)

61) 강동엽, 「조선 지식인의 문학과 현실인식」, 박이정, 2008, 28~29면 참조.

하물며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하늘의 命을 거역하면서 민심을 얻어 다스릴 수야 있겠는가?"[62]

이토록 조선에서는 신라·고려에서보다 인재의 쓰임에 있어서 편협하여 낮은 신분계층에 속하는 뛰어난 인재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재등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李瀷은 "사람을 위해 벼슬을 택하는 가장 심한 폐단은 오직 科擧이다"[63]라고 하였고, 정약용은 "온 세상을 거느리고 온 천하를 몰아서 광대와 연극놀음을 하게 하는 것이 과거의 虐이다"[64]라고 하면서, 당시의 과거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권력층보다도 중서 이하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엄격한 견제를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取人의 길이 심히 좁아 鄕民이 其于를 가르치고자 함이 매우 적다. 그 중 巨蘖이라 부르는 자, 교생을 칭함을 득한즉 심히 다행하며, 중서, 천족으로 자획한즉 비록 양촌·美質이 있으나 다시 振奮의 길이 없다.[65]

위 문헌을 통하여 당시 사회의 모순점을 지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당쟁의 치열함이 급기야는 사회제도의 혼란과 인재등용에 있어 지방색을 나타내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신분제도의 엄격한 구분에서 그들 권력층에 대한 자위책을 삼았던 것이다. 이에 인재등용의 문제가 「엄처사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허균은 인재등용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작품에 어떻게 투영시켰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사대부의 이상과 현실

「學論」에서는 당시의 유학자들이 유학의 본질인 '明道窮理'에는 힘쓰지 않고, 학

62) "天之生也而人棄之, 是逆天也, 逆天而能祈天永命者, 未之有也. 爲國者其奉天而行之, 則景命亦可以迓續也."(許筠, 「遺才論」, 『國譯 惺所覆瓿藁』2, 191면)

63) "擇官之害, 最甚者, 其惟科擧乎."(李瀷, 『星湖僿說』권10, 「爲官擇人」; 『國譯 星湖僿說』4, 민족문화추진회, 1989)

64) "主斯世, 而帥天下以倡優演戲之技著, 科擧之學也."(丁若鏞, 「五學論」4, 『與猶堂全書』1; 『茶山論說選集』, 現代實學社, 1996, 62면)

65) 「選擧考」18, 『國譯 增補文獻備考』,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5.

문을 榮達의 수단으로 하여 僞學을 일삼고 있음을 지적하고, '私其利窃其名'하는 僞學者로 金宗直같은 인물을 지적하고 있다.[66] 「엄처사전」은 「학론」에서 비판한 僞學者들에게 경계가 될 만한 참된 儒者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에 허균은 엄처사의 뚜렷한 出處觀과 역사 인식을 가지고 孝와 敬을 실천한 선비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엄처사전」은 처사의 전형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입전한 것이라 여겨진다. 여기서 '處士'는 국가를 경영할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대를 난세로 인식하여 출사를 단념하고 초야에 은둔한 일군의 선비들을 말한다. 16세기에는 사화의 여파로 이러한 선비들이 다수 존재했는데, 이들은 隱士, 遺逸, 隱逸, 逸士, 處士 등으로 불렸다. 이중 '處士'라는 칭호는 당대인들에게 매우 영예스러운 호칭으로 사용된 것으로 짐작된다.[67] 그들의 處士的 삶 속에는 성리학적 세계관에 근거한 현실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것이 그들의 현실대응 자세를 규정하면서 出處에 있어 出대신 處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處士的 삶 속에는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성리학적 세계관과 함께 그들이 처한 16세기 시대상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방향 등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8]

그렇다면 「엄처사전」을 통하여 허균이 이해하고 있는 처사의 전형은 무엇이었을까? 또한 허균이 엄처사를 입전하여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허균이 입전한 엄처사의 특징을 살펴보자.

엄처사는 출처관이 뚜렷하다. 處士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처사는 出보다는 處에 치중한 학자이다. 허균의 다른 4편에 등장한 주인공들은 사회적 제도하에 이름대신 분류되어지는 천인이거나, 중인, 서류의 신분인데, 「엄처사전」의 주인공인 '엄충정'은 유일한 사족출신이다. 비록 집안이 가난해서 몸소 땔감과 먹을 것을 마련해야하는 입장이지만, 儒者로서의 직분을 버리지 않는 충실한 유가적 인물이다. 책이라면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특히 『주역』과 『중용』을 깊이 이해하여 저술한 글들이 모두 河圖와 洛書에 서로 부합되었다.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 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를 봉양하는 모습이나, 책을 읽고 과거를 보는 이유가 단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라든지, 또는 제자들을 교육시킬때 반드시 충효를 첫째로 하고, 화려한 名利따위는 벗어난 점 등의 모습에서 그의 유가적 면모를 살필

66) 許筠, 「學論」, 『國譯 惺所覆瓿藁』2, 181～183면.
67) 신병주, 「16세기 초 처사형학자의 학풍과 현실관-金大有와 朴河談을 중심으로」, 『南冥學硏究論叢』5, 1997, 490면 각주1번 참조.
68) 설석규, 「16세기 처사형 사림의 성리학이해와 출처관-花潭 徐敬德과 南冥 曺植의 경우」, 『南冥學硏究論叢』9, 2001, 120면 참조.

수 있다.

> 服制를 마치자, 벗들이 과거에 응하기를 권했다. 처사는 울면서, "나는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 과거보려 하였다. 이제 왜 과거를 보아 내 몸만 영화롭게 하고 어머니는 누릴 수 없게 하랴. 나는 차마 그럴 수는 없다." 하면서 목메인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 남들이 감히 다시는 말하지 못하였다. 晩年에 우계현으로 이사와 살며 山水가 幽絶한 곳을 택하여 띠집을 짓고, 거기서 일생을 마치려 하였다. 궁핍하여 제 몸을 의탁하지 못했으나 마음만은 편안하게 살았다.[69]

엄처사는 그 어머니가 글을 배워 과거를 보도록 권하자, 열심히 글을 배워 학문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또한 詩賦도 매우 雅健하게 지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향시에 응시해 여러 번 뽑혔고, 사마시에도 합격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벗들이 과거에 나갈 것을 권하자 기뻐해주실 어머니가 없다는 핑계로 이를 거부하였다. 그리고는 평생을 우계현에 은거하였다. 엄처사는 출세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주된 목적은 산림에 처해서 학문·도덕을 수양하고, 이를 후세에 전하는 것이다.

「엄처사전」의 엄처사는 至孝의 인간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과거 보기를 포기 했으며, 우계현 산수 깊숙한 곳에 띠집을 짓고 여생을 마쳤다. 언뜻 보기에는 개인과 사회의 마찰이 전혀 없는 듯이 보인다. 그는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세속의 명리를 떨쳐 버리고 초월적 삶을 누리다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처사는 근본적으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였다. 그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굳이 세상에 나가기를 꺼렸다. 표면적인 이유로 "내 몸이 영화로워도 어머니가 이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를 차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엄처사와 같이 窮理를 깨쳤으면서도 어머니가 누리지 못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스스로 그렇게 살아갔을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화합할 수 없는 세상에 그 근본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후진을 교육시킬 때도 "화려한 名利 따위야 완전히 벗어난 듯 한마디도 말한적이 없었으며, 史書를 읽으며 成敗治亂과 君子小人의 구별함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강개하며 명확히 판단했다."[70]라는 점으로 보아 세상에 결코 무심했던 것은

---

69) "制訖, 朋友勸應擧. 處士泣曰, 吾爲老母也, 今奚赴爲, 身榮而母不享, 吾不忍是. 悲咽不止, 人莫敢更言. 晩年移居羽溪縣, 擇山水幽絶處, 構茆舍, 若將終身焉. 窮乏不自聊, 晏如也."(許筠, 「嚴處士傳」, 『國譯 惺所覆瓿藁』2, 120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세상의 부조리, 불합리를 너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에 수용되기를 스스로 거부했던 것이다. 결국 엄처사는 "몸을 세상에 드러내서 자신의 도를 행하고, 후세에 이름을 드날려서 부모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71]라는 『孝經』의 구절을 몸소 실천한 儒者이다.

그러나 儒者이기는 하지만, 유교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불행한 인물이다. 그가 과거에 입격한 것은 그 자신의 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였고, 그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벼슬살이 하지 않고, 은둔을 택함으로써 그는 그가 처한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우계현의 산수가 깊은곳에 들어와 띠집을 짓고 사는 것은 사회로부터의 도피이며 외면이다. 즉 엄처사는 번화한 名利를 쫓기에 바쁜 儒者들의 행위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 영달하기에 급급한 세태에 혼연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혼탁한 사회속에서 그가 취한 행동은 작자인 허균이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사악하다고 여기고, 뜻을 같이 하면 바르다고 하며,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고 몰려다니는 현실이었다. 작자인 허균은 그러한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엄처사는 孝와 敬을 실천한 사람이다. 『論語』에 "집안에선 효도하고, 밖에 나와선 공손하며, 행실은 삼가고, 말은 미덥게 하며, 널리 대중을 사랑하면서도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를 행하고 여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글을 배울 일이다."[72]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입전하고자 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자.

> 어머니를 봉양하는 데 효성을 다하여 새벽이나 저녁에는 곁에서 떠나지도 않았다. 어머니가 조금만 편찮으면 마음 편하게 잠자리에 들지도 않으며, 손수 음식을 만들어 드시게 하였다. 어머니가 비둘기 고기를 즐겨하자, 그물을 짜고 간대에 갖풀을 붙여서라도 기필코 잡아다가 대접하였다.…어머니 병환이 위독하여 자기를 데려가고 어머니 살려 주기를 하늘에 기도했지만, 회생하지 못하자 여러 날 동안 물도 마시지 않아 지팡이를 짚어야 일어날 정도였다. 3년간 廬墓살이에도 죽만 마셨다.…사람됨이 화평하고 순수하며, 평탄하고 툭 트여 남들과 거슬리지 않았다. 평상시에는 공손하고 지성스러웠으나 고을에서의 잘잘못을 평하거나, 사양하고 받으며 취하고 주어야 할 것들에 있어서

70) "以其紛辞名利, 則泊然不一出諸口, 讀史至成敗治亂君子小人之辨, 必慷慨論折."(許筠, 「嚴處士傳」, 前揭書, 120면)
71)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孝經』「開宗明義章」)
72) "入則孝, 出則悌,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論語』「學而」)

는 확고부동하여 범할 수가 없었고, 일체를 義로만 재단하자 고을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공경하였다.[73]

이 글은 엄처사가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몸과 성의를 다했고, 또 고을에서는 공손하고 정성스럽게 사람들을 대했음을 말해준다. 어머니가 참새 고기를 즐기자, 그물을 짜고 간대에 갖풀을 붙여서라도 기필코 잡아다가 봉양하였고, 어머니가 위독할 때는 여러 날 먹지 않아서 쓰러질 정도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공손하고 의롭게 생활하여 모든 마을 사람들이 엄처사를 공경하고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허균은 당대 처사들이 실천궁행의 지표로 삼았던 『소학』을 실천하는 엄처사를 입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허균은 이런 엄처사가 역사 인식이 뚜렷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다음은 엄처사가 제자를 가르칠 때의 행동을 묘사한 부분이다.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도 반드시 忠孝를 첫째로 하고 화려한 名利따위야 완전히 벗어난 듯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었다. 史書를 읽으며 成敗·治亂·君子·小人을 구별함에 이르러서는, 언제나 강개하여 명확히 판단하고 막힘이 없어 들을 만하였다. 武穆이나 文山이 죽어간 대목에 있어서는 별안간 책을 덮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74]

엄처사는 제자를 가르칠 때 명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충효만을 가르쳤다. 또 사서를 읽으면 成敗·治亂·君子·小人을 구별함에 있어서 명확히 판단하고 막힘이 없었다. 이는 모두 국가차원의 성패와 치란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만들어가는 것은 군자와 소인이다. 엄처사는 이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비분강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武穆이나 文山이 죽어간 대목[75]에서는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이는 간신배들의 농락으로 인하여 충신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깊

---

73) “養其母極孝, 晨夕不離側. 母稍恙則不解帶寢, 手調膳以進. 母嗜山雀, 結網膠竿, 必獲以供之.…母病殆, 以身禱於天不獲祐, 水漿不御數旬, 杖而起. 三年廬啜粥.…爲人和粹夷曠, 居肫肫如也, 及至鄕評臧否, 辭受取與之間, 截然不可犯. 一切以義裁之, 鄕人皆受而敬之.”(許筠, 「嚴處士傳」, 『國譯 惺所覆瓿藁』2, 119면)

74) “訓誨後進, 必以忠孝爲先, 以其紛誶名利, 則泊然不一出諸口. 讀史至成敗治亂君子小人之辨, 必慷慨論折亹亹可聽. 於武穆·文山之死, 則輒掩卷流涕.”(許筠, 「嚴處士傳」, 前揭書, 120면)

75) 武穆과 文山은 중국 역사에서 이름난 충신들이다. ‘武穆’은 송나라 岳飛의 諡號이다. 금나라에 항전하던 중 39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다. ‘文山’은 송나라 文天祥의 號이다. 그는 송나라 좌정승을 지내던 중, 원나라에 잡혀가 3년을 옥에 갇혀 지냈으나, 끝내 절개를 굽히지 않다가 피살된 인물이다.

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곧 무목과 문산의 일은 지나간 시대의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당세의 모습일 수도 있었다. 그렇기에 자신도 출사하지 않고 처사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당세의 상황을 허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요즈음의 이른바 군자·소인이란 서로 간에 큰 동떨어짐이 없다. 자기들과 뜻을 같이하면 모두 군자로 여기고, 달리하면 모두 소인으로 여긴다. 저편이 이쪽과 다르다면 배척하여 邪하다 여기고, 이편과 같이 뜻하는 사람이라면 치켜세워 正이라 여긴다. 是란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시이고, 非란 그들이 그르다고 여기는 것이 비이니, 이건 모두 公이 私를 이길 수 없는 이유로 그런 것이다.[76]

이는 「소인론」의 일부이다. 소인이나 군자가 별다른 차이 없이 자기와 뜻을 같이하면 군자로 여기고, 달리하면 소인으로 몰아가는 세태를 지적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의 사림들은 자신들과 다르면 사악하게 여기고, 뜻을 같이하면 바르다고 하여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고 몰려다니는 현실이었다. 그러한 현실을 허균이 보고 비판을 한 것이다. 유교적 소양을 갖춘 儒者인 엄처사는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에 당대 상황에 슬퍼했을 것이다.

허균은 논평하는 글에서 엄처사는 불우한 인물이었으므로 입전한다고 밝히고 있다. 엄처사는 자신의 죽음도 미리 알고 준비하였고, 단정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 할 정도로 비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또한 문장으로도 세상에 알려져 조정에서 두 번이나 참봉의 벼슬을 내릴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처사였다. 허균은 엄처사가 죽었을 때의 주변의 반응을 적고 있다. 그가 죽자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면식이 있든 없든 간에 사부들이 모두 와서 조상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는 곧 당시의 학식이 있는 선비라면 모두 엄처사의 도덕 수양과 그것의 실천을 인정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허균은 이러한 엄처사의 인식을 높이 평가하여 재조명하며 입전하였다.

당대의 부조리한 상황이 만연되어 있는 유교사회에서 능력충만한 인재를 눈뜨고 놓친 것이다. 엄처사같이 훌륭한 선비들이 많은데도 이런 선비들이 인멸되도록 방치하고, 후대에 의론이 많은 사람들이 문묘에 종사하고 있다. 허균은 이러한 사회현실의 모습을 보고 엄처사를 내세워 儒者의 입으로서 당대의 사회상을 드러내

---

76) “方今之所謂君子小人, 无大相遠者, 而同則皆爲君子, 異則皆爲小人. 彼異則斥以爲邪, 此同則推以爲正. 是者是其所是, 非者非其所非. 此皆由公不能勝私而然也.”(許筠, 「小人論」, 『國譯 惺所覆瓿藁』2, 194면)

고자 한 것이다.

「엄처사전」의 엄처사는 유교사회의 충효이념을 철저히 실천한 儒者이면서도 당시 유교사회의 모순된 현실사회에 타협하기를 거부한 인물이다. 엄처사는 당대 현실과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대립 양상은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더욱 강화된다. 그는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때는 어머니의 기쁨을 위해서 당대 사회와 타협하기도 했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타협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가 당대사회와의 타협을 거부하는 행위는 진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질서와 화합하기를 거부하고, 내면의 문을 닫아 버림으로써, 자기가 택한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의 道를 펴고 살아가려 한다. 현실 사회 속에 일체되기를 포기함으로써 현실적 질서를 거부하려 하는 것이다. 우계현의 산수가 깊은곳으로 들어가게 된 상황이 사회로부터의 도피이다. 사회에는 본인이 꺼려하고 하지 않았던, 名利에 연연하며 영달하기에 급급한 무리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런 儒者들의 영욕하는 행위를 따르기를 본인이 거부하였고, 그런 유교사회로부터 도피를 선택한 것이다.

Ⅳ. 異人의 등장과 초월의 지향

조선조 도가사상은 김시습의 시대를 萌芽期라고 한다면, 허균의 시대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구체화되는 滿開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복합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다. 政爭과 戰爭이 가져다 준 인간정신의 황폐, 학문의 分岐가 가져온 다양한 세계관의 모색, 그리고 異人 및 神仙과 같은 특출한 능력 소유자의 출현을 願望하는 정신 해방의 욕구로 집약된다. 이 장에서는 당대 사회의 혼란한 상황속에서 개성적인 인물이 입전되면서 등장했던 俠의 개념과 의미에 중점을 두어 분석, 고찰해 보기로 한다. 俠의 의미와 성립과정을 살펴보고, 16~17세기 한시적으로 등장했던 유협이라는 인물군의 특징과 함께 당대의 사회상황과 함께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자. 또한 당시에 뚜렷하게 나타난 道仙的 경향에 주의를 기울여, 사회의 주요한 요소에 비추어 해석하고, 작품의 성격을 규명해 보도록 하자.

1. 유협의 세계와「장생전」

1) 사회균열과 俠의 등장

중국에서 俠은 儒와 마찬가지로 先秦시대에 나타나 계속 존재해 오고 있는 오랜 역사를 지닌 사회 계층이다. 중국에서 俠은 武나 劍의 개념과 함께 발달해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유협이라는 계층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游俠列傳」이 그 원류이다. 유협열전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활동상이나 사상이 우리나라의 유협과 매우 흡사하므로 중국 유협 계층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유협을 이해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중국 유협의 발생과 변화 과정을 소략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유협에 대한 인식과 조선시대 유협전 형성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 俠의 발생은 원시 尙武習俗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원의 원시적 생활환경과 부락간의 빈번한 전쟁이 상무 전통을 형성하게 했고, 이는 俠의 탄생에 문화적인 기초가 되었다. 또, 사회 전체적인 好劍의 시류, 士계층의 분화로 인한 武士의 출현이 계기가 되었다.[77]

---

77) 陳山,『中國武俠史』, 동문선, 1997, 23~35면 참조.

민간에서는 무수한 유협이 속출하였고, 사당을 수립하여 민간질서의 담당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東漢이후 유협 활동을 개인적인 명망을 내세워 통치 계층으로 상승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호협들이 생기면서 계층의 성격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호협들의 권세가 막강해지고 지방의 질서가 파괴되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자 대대적인 탄압을 받게 되었다. 유협은 동한 시기에 극성기를 이루고 점차 쇠락하게 되어 더 이상 중요한 사회성분으로 인식되지 못하게 된다.

춘추시대를 원류로 하는 유협은 주종관계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정치적으로 부침을 겪으며 발달하였다. 한나라에 이르러 민간 질서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후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통치권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자 탄압을 받고 쇠퇴하였다.

"儒는 文으로써 法을 어지럽히고, 俠은 武로써 禁을 범한다."라고 한비자가 말했다.[78] 儒者는 文으로써 法을 어지럽히고 俠者는 武로서 法을 어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漢이 유교를 국교화한 이래 儒者는 체제 속에 편입되어 세상의 칭송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세상의 풍파를 일으킨다고 비난받던 儒者가 어느 새 칭송을 받는 존재로 변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배계급의 충복자가 되었다.[79] 그러나 俠者만이 오로지 불의와 맞서며 민중들의 한을 대신 풀어 주었다.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俠者들을 열렬히 사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유협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서의 유협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두 가지 설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협전의 원류를 창시했던 사마천은 『史記』의 「游俠列傳」에서 유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그 행위가 반드시 정의에 합치되지는 않지만, 그 말에는 반드시 신의가 있고 행동은 과감하였으며 이미 승낙한 일에는 반드시 성의를 다하였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몸을 버리고 남의 고난에 뛰어들 때에는 생사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고, 그 공덕을 내세우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이 여기니, 족히 찬미할 만한 것이 많을 것이다.[80]

---

78) "儒以文亂法, 俠以武犯禁."(『韓非子』「五蠹篇」)
79) 陳舜臣, 『中國義俠傳』, 서석연 옮김, 서울출판미디어, 1996, 10면 참조.
80) "其行雖不軌於正義, 然其言必信, 其行必果, 已諾必誠, 不受其軀赴士之阨因, 旣已存亡死生矣. 而不矜其能, 羞伐其德, 蓋亦有足多者焉."(『史記』164, 「游俠列傳」64)

즉, 사마천이 발견한 유협이라는 인간군상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고, 선의와 용기가 있는 인물로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알아 여러 사람의 귀감이 될 인물이었던 것이다.

중국에서의 유협은 流氓을 원류로 보기도 하는데, 유맹을 '일정한 거처가 없는 유랑자로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어지럽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유협은 거처가 없이 떠도는 자로 사회의 규범에서 이탈된 인물의 한 부류에 해당한다. 또한 유협에서 游의 개념은 사회를 떠돌아다니면서 통치자에 대해 원심력을 가진 사회세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속박에서 벗어나 유동적인 움직임을 가진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협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진한 시기에는 유협이라는 말의 별칭이 매우 많아 輕俠, 大俠, 豪俠 등의 호칭이 있었으나, 어떤 호칭이든 간에 그들은 모두 호쾌하고 사귀기를 좋아하며,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의리를 중시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과감한 사람들을 일컬었다.[81]

우리나라의 유협은 이 두 가지 서술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고루 가지고 있다. 俠을 행하고 정의를 받들어 그 이미지가 훌륭하여 칭송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모순된 현실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이탈자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 당대 혼란하고 모순된 현실과 치열하게 대응하면서 이탈하고자 하는 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충신·효자·열녀와 같은 인물뿐만 아니라 名畵工·名樂工과 같은 藝人과 名醫나 譯官과 같은 중인들도 立傳되었으며, 胥吏·匠人·市政의 악소배 등과 더불어 재물과 생사를 초월한 유협[82]들이 입전되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오랜 전란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또 다른 세계를 동경하는 서로 엇갈리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으며, 당쟁까지 격하여 이 생각들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허균은 이런 시대를 가장 치열하게 살다간 사람 중의 하나이다. 특히 그가 남기고 간 작품들 중에는 자기 시대를 얼마나 절박하게 인식했으며, 어떻게 그 생각을 글 속에 담아낼까 고심한 흔적들이 녹아 있다. 이를 중심으로 당대 사회의 균열과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향 속에서 俠의 등장의미와 영향을 되새겨 보며, 작품속에 어떻게 형상화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후기는 양란 이후 정치적인 혼란과 신분제의 분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부패가 심화되었다. 이로 인한 국가 공권력의 부재는 '유협'과 같은 인간형이 출

---

81) 陳寶良, 『中國流氓史』, 이치수 옮김, 서울 아카넷, 2003, 30면 참조.

82) "義氣交游, 好施予, 重然諾, 救災恤患, 詩人文士, 時節相追遂."(鄭來僑, 「林俊元傳」, 『浣巖集』권 4)

현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또한 상업의 발달로 인한 市井공간의 확대와 경제력 구축은 유협의 활동을 지원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고, 실학의 발달과 중인층의 성장은 유협이라는 인물을 입전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조선후기에 와서 활동상이 두드러졌던 유협과 같은 인물군은 신의를 중시하고 남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몸을 아끼지 않는 義氣를 가진 인물이다. 사회의 모순과 지배층의 부조리에 맞서는 행동으로 영웅적 존재로 인식되며, 국가 공권력의 부재를 보충하고 민간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장을 살펴봄으로써 유협을 통해 당대 사회에 한시적으로 등장했던 유협이라는 인물군에 대한 정의와 사회적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조선후기에 와서 두각을 드러낸 유협이라는 존재는 당대 사회가 낳은 특별한 인물군상이다. 그러므로 유협이라는 인간형의 특별성과 함께 특정 시·공간 속에서 가지는 역사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작가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독해하는 기능 외에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특수성을 파악하는 기능을 가진다. 사실을 모티브로 한 傳은 당시 사회구조와 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이다. 성리학적 지배체제가 와해되어 가고 사회·문화·경제적인 변화를 겪고 있던 조선후기에 배출되었던 유협전을 통해서 당시 사회 현상과 분위기 등을 살펴볼 수 있다.

傳의 일차적인 입전 동기는 포폄이다. 특정 인물의 행적이 모범이 되어 길이 남길 만한 것일 때 그 功過를 따져 가치 평가적 의미를 확보한다. 또한 기이하거나 특별함으로 이목을 집중시킬 경우에도 포폄의 대상이 된다. 유협은 활동 양상과 행적 면에서 남다른 특이성을 지닌다. 사회적인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활동, 신분적 한계를 뛰어 넘는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사고방식은 단순한 특이성을 뛰어 넘어 시대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당대 사회가 배출한 유협이 보여주는 활약과 치열한 삶의 행적, 그들의 다양한 현실 대응 방식을 살펴보고, 유협이라 불리는 인물군의 정의와 사회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작품속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 상황과 유협의 행동 양상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작품의 의미의 핵심을 알 수 있다.

박희병은 유협의 활동과 유협을 숭상하는 민간의 분위기 및 유협전의 성격을 검토하였다.[83] 유협전을 주인공의 계층, 산생시기, 활동내용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역사적인 성격을 조명하였다. 유협이 추구했던 제 가치는 근대사회의 시민적 이념이었으며, 이를 반영하고 있는 유협전은 “봉건사회의 해체기와 시민사회의 형성기 사

83) 박희병, 「조선후기 민간의 유협숭상과 유협전 성립」,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288면 참조.

이의 이행기에 그 사적 의의를 갖는 문학"이라고 정의하였다. 유협전의 성립 배경으로 도시의 발달에 따른 시정공간의 확대 및 민간의 유협숭상 분위기를 들었다. 俠의 계층적 특성을 당시 사회문화 발달의 측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김정일은 유협의 형성과 활동 배경을 살펴보고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유협전의 구조를 분석하였다.[84] 투쟁적 구조형과 순치적 구조형으로 분류하여, 민중의 영웅이 되는 유협과 사대부의 문화를 모방하고 정신적으로 지향했던 유협으로 구분하였다. 유협의 활동과 형성 배경으로는 중인계급의 신장과의 관련성,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 공권력에의 도전 등을 들었다.

도명순은 유협을 호걸형 유협, 의기형 유협, 충직형 유협의 세 가지로 나누고 '傳' 이외의 조선후기의 漢詩를 통한 유협의 형상을 살펴보았다.[85] 국가권력 질서의 해이와 문란은 민중의 불신을 초래하여 공인된 법과 질서를 무시하였으며, 이러한 국가권력의 공백을 메워들어간 사람이 유협들이었다. 조선 당대의 사회가 구조적 모순과 한계를 지니다보니 유협은 그러한 모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즉 공권력에 도전하여 그것을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것은 유협의 활동배경의 구조가 되었다.

유협의 비판대상도 士계층이며, 그들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저항하거나, 간접적으로 비판하게 된다. 수많은 민란으로 인해 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국가권력의 부재가 가속화되면서 이를 배경으로 공권력을 대신하는 유협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와 명분이 마련되어 유협의 출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유협은 민중과 한 약속이면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반드시 지켜서 민중들로부터 믿음을 획득했다. 유협들은 당시에 재물을 빈한한 민중들에게 나누어 주며, 불의한 士계층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그들을 혼내주어 민중의 절대적 지지와 존경을 받았다. 유협은 凡人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서 민중의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며, 권력자들과 투쟁을 벌이는 그들은 민중의 영웅적 존재가 되었다.

당대의 많은 사회적문제와 구조적 모순을 내포한 현실속에서 유협들은 문제점을 해결해 줌으로써 민중의 영웅이 되었으며, 이것은 유협의 활동구조와 사회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편적으로 허균의 「豪民論」에서 나타난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다.

---

84) 김정일, 「유협전 연구」, 『국어국문학』16, 동아대학교, 1997.
85) 도명순, 「유협전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7.

지금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땅이 좁고 험준하여 인민도 적고, 백성은 또 나약하고 소심하고 인색하여 奇節이나 俠氣가 없다. 그런 까닭에 평상시에도 큰 인물이나 재능있는 사람이 나와서 세상에 쓰이는 수도 없었지만, 난리를 당해도 豪民·悍卒들이 倡亂하여, 앞장서서 나라의 걱정거리가 되게 하던 자들도 역시 없었으니 그런 것은 다행이었다.[86]

奇節이나 俠氣가 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는 무리를 생성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없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들이 나와 세상에 쓰일 수 없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허균은 불의한 세상에 반발하며 맞설 수 있는 강개함을 '俠'의 기질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異人과 유협의 면모

조선시대 시정의 민간사이를 떠돌아 다니던 遊俠의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傳은 「장생전」부터이다. 17세기 초반의 이 傳에는 俠을 행하는 인물의 형상이 단초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것은 18세기 이후 폭발적으로 창작되었던 '遊俠傳'류에 나타난 俠의 형상과도 일정부분 닮아있다.

'異人'이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잘 드러내지 않는 인간부류를 지칭한다.[87] 「장생전」은 장생이라는 인물의 異人的 풍모를 다룬 傳으로, 장생에 대한 기록은 김려의 『潭翁遺藁』, 홍만종의 『海東異蹟』, 유재건의 『里鄕見聞錄』, 이원명의 『東野彙輯』 등 여러 문헌에 등장한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傳'이라는 양식이 유가적 이념을 구현한 인물들의 행적을 기리기 위한 것에서 임진·병자 양전쟁을 치른 조선 봉건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조선 전기 문학 방면의 강고한 이념의 이탈이 부른 결과로 볼 수 있다.[88] '傳'이라는 것은 본래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수행한 인물의 행적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조선후기 사회의 변동은 傳의 성격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장생전」과 같은 특수 인물군의 등장 傳

86) "今我國不然. 地陿阨而引少, 民且皆瘐齷齪, 无奇節俠氣, 故平居雖无鉅人雋才出爲世用, 而臨亂亦无有豪民悍卒倡亂, 首爲國患者, 其亦幸也.", (許筠, 「豪民論」, 『國譯 惺所覆瓿藁』2, 197면)

87) 異人의 개념규정이나 성격 등에 대해서는 조동일, 「口傳說話에 나타난 異人의 면모」(『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1985)를 참조.

88) 김영, 「朝鮮後期 傳의 變化樣相에 관한 硏究」, 『국어교육연구』7, 인하대학교, 1995, 430~431면 참조.

은 조선후기의 사회적 변동이 문학방면에도 영향을 준 결과이다.

작가는 문체와 이야기 줄거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제도 창조하는, 인생을 개척하며 사회와 함께 전진하는 旗手가 되어야 한다.「장생전」은 17세기 초에 쓰여진 것으로 이상주의에서 벗어날 수 는 없었으며, 인간의 조건의 근원적 해결방법을 仙道에서 찾았고 그 당시의 종교사상들이 잘 반영되어 이상주의적 도선사상이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장생전」도「장산인전」과 마찬가지로 道仙術士의 이야기이지만,「장산인전」보다는 俠士類에 가까운 데가 있다.

「장생전」은 俠을 행하는 인물이 나타나고 있는 초기 작품이다. 이 작품은 '俠'자체에 중심이 있다기 보다는 異人的 성향에 더 기울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俠에 대한 인식이 단초적이나마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내용구성에 있어서도「장생전」에는 넓은 의미의 '俠義文學'에서 초기 '俠傳'으로 볼 만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논의대로 '신선전' 혹은 '이인전'으로만 볼 수 없다.

허균이「장생전」에 투영한 俠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俠이 지닌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俠은 기본적으로 봉건지배층에 반하는 제도 반발적 기질을 지닌다. 그렇기에 정치권에 부합하지 않으며, '信義'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윤리이념 하에 행동하는 것이다. 이들이 犯法을 하더라도 결코 굽히지 않는 강인함을 보이는 이유도 자신들이 세운 신념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강개함'이다. 俠을 행하는 사람들은 약자를 도와주며, 올바름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 또한 권력자에 억눌리지 않으려는 의지도 보인다. 이런 것들은 義를 중시하는 俠의 강개한 기질에서 비롯된다. 마지막으로 俠은 지극히 개인적이다. 무리짓는것이 이들의 특징이지만 결코 무리지어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설사 무리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별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안에서 개인적 성향을 보이는 것이 俠의 기질이다.[89] '俠'을 실천하는 데에는 '義氣' 혹은 '信義'에 기반한 자기희생이 따른다. 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범법행위일지라도 '義'가 기반이 된다면 자신들의 행위가 스스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장생전」은 선조 22(1589)년에 서울에서 여러 가지 신이한 행적을 보여, 당시 異人으로 유명했던 장생이란 거지가 장안의 술집과 妓房을 주 무대로 재주를 팔아 걸식하며 자유분방하게 살다간 그의 생애를 생동감 있게 서술한 것이다. 비범한 능

89) 박혜순,「俠傳의 초기적 형태로서의 장생전 연구」,『어문논집』60, 고려대학교, 2009, 18면 각주 34번 참조.

력을 가진 주인공이 기이한 능력으로 곤란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한다는 善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善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될 수 있었다. 허균 또한 장생의 異蹟奇事에 대하여 믿음과 동경의 입장에서 입전한 것을 알 수 있다. 허균은 장생을 異人의 부류로 인식하였다. 비범한 능력을 지녔으나 불우한 삶을 사는 현실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인물이라 하였다. 우선 장생의 출신과 생활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 장생이란 사람은 어떠한 내력을 지닌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없었다. 기축년(1589, 선조 22) 무렵에 서울에 왕래하며 걸식하면서 살아갔다. 그의 이름을 물으면 자기 역시 알지 못한다 하였고,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거주했던 곳을 물으면, "아버지는 밀양의 좌수였는데 내가 태어난 후 세 살이 되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께서 婢妾의 속임수에 빠져 나를 농장 종의 집으로 쫓아냈소. 15세에 종이 상민의 딸에게 장가들게 해주어 몇 해를 살다가 아내가 죽자 떠돌아다니며 湖南과 湖西의 수십 고을에 이르렀고 이제 서울까지 왔소." 하였다.[90]

부모에게 버림받고 아내마저 죽은 상황은 그로 하여금 평범한 삶을 살 수 없게 만들며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遊客의 형상을 지니게 한다.

> 그의 용모는 매우 우아하고 수려했으며 眉目도 그린 듯이 고왔다. 談笑를 잘하여 막힘이 없었고 더욱 노래를 잘 불렀으니 노래 소리가 처절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곤 했었다.[91]

그가 평소에 부르는 처연한 노래들은 자신의 불우한 상황에서 쌓인 감정들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장생은 제도권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 체제 내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하고 순응할 수도 없는 인물이다. 그렇기에 그의 평소 모습은 걸인의 그것에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장생의 여러 행동에서 그가 결코 비범한 인물이 아님이 드러난다.

---

90) "蔣生不知何許人. 己丑年間, 往來都下, 以乞食爲事. 問其名則吾亦不知. 問其祖父居住則曰, 父爲密陽座首, 生我三歲而母沒, 父惑婢妾之譖, 黜我莊奴家. 十五奴爲娶民女, 數歲婦死. 因流至湖南西數十州, 今抵洛矣."(許筠, 「蔣生傳」, 『國譯 惺所覆瓿藁』2, 143면)

91) "其貌甚都秀, 眉目如畫. 善談笑捷給, 尤工謳, 發聲凄絶動人."(許筠, 「蔣生傳」, 前揭書, 143면)

늘 자주색 비단으로 된 겹옷을 입고 다녔는데, 추울 때나 더울 때에도 갈아입는 적이 없었다. 倡女나 기생들 집에도 다니지 않는 곳이 없어 잘 알고 지냈으며, 술만 있으면 곧바로 자기가 떠다가 잔뜩 마시고는 노래를 불러 아주 즐겁게 해주고는 떠나가 버렸다. 어느 때는 술이 한창 취하면 맹인·점쟁이·술 취한 무당·게으른 선비·소박맞은 여인·걸인·노파들이 하는 짓을 흉내냈으니 하는 짓마다 아주 똑같이 해댔었다. 또 가면을 쓰고 열심히 十八羅漢을 흉내 내면 꼭 같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또 입을 찡그려서 피리·거문고·비파·기러기·고니·무수리·집오리·갈매기·학 등의 소리를 내는데, 진짜와 가짜임을 구별하기 어렵게 하였다. 밤에 닭 우는 소리·개 짖는 소리를 내면 이웃 개나 닭이 모두 울고 짓어대는 지경이었다. 아침이면 밖으로 나와 거리나 저자에서 구걸을 했으니, 하룻동안에 얻는 것이 거의 서너 말(斗)이었다. 몇 되(升)쯤 끓여 먹고 나면 다른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밖으로만 나오면 뭇 거지 아이들이 뒤를 따랐다. 다음날에도 또 그와 같이 해버리니 사람들은 그가 하는 짓을 헤아릴 수 없었다.[92]

그는 자주색 비단옷을 입고 다녔다. 자주색 비단 겹옷은 그가 결코 하층에 귀속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으며, 기인의 형상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짓을 헤아릴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그만큼 기행을 일삼았음을 드러내는 一例일 것이다.

이런 기행은 술이 취했을 때 더욱 드러난다. 그는 술이 취하면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흉내내고, 모든 악기와 짐승소리를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모사능력은 일종의 기예라고 할 수 있다. 맹상군의 식객 중 개소리를 내어 위기를 벗어나게 한 인물이 있듯이 장생의 이런 기예도 단순한 재주로 보고 넘길 수는 없다. 특히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술에 취해야 나오는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 하다. 평소 술을 좋아하며, 호방함을 자랑한다. 술이 취했을때 자신의 마음을 노래로 풀어내는 모습은 현실 상황에 얽힌 마음을 품고 있는 체제 반항적인 '俠'의 기질을 드러낸다고 볼수 있다. 이런 사실들로 볼 때 장생은 기예적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당대의 엄정한 예교적 사회에서 술집이나 기생방을 자유롭게 출입한 것을 보면 상당히 자유분방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

92) "常被紫錦袂衣, 寒暑不易. 凡倡店姬廊, 靡不歷入慣交, 遇酒輒自引滿, 發唱極其懽而去. 或於酒半, 效盲卜醉巫懶儒棄婦乞者老仍所爲, 種種逼眞, 又以面孔學十八羅漢, 無不酷似. 又蹙口作笳簫箏琶鴻鵠鶩鴉鶴等音, 難辨眞贋. 夜作鷄鳴狗吠, 則隣犬鷄皆鳴吠焉. 朝則出乞於野市, 一日所獲幾三四斗. 炊食數升, 則散他丐者. 故出則群乞兒尾之. 明日又如是, 人莫測其所爲."(許筠, 「蔣生傳」, 前揭書, 143면)

또한 장생이 자신의 재주로 저자거리에서 구걸하는데 하루에 서너 말의 양식을 얻었으나 한 끼 먹을 만큼만 끓여 먹고 나머지는 다른 거지들에게 나누어주었다는 것, 그래서 따르는 거지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 이러한 행적을 매일같이 해서 사람들은 그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등은 의적활동을 하는 박애주의적 성격의 소유자인 것을 말해준다. 약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는 분명 '俠'의 전통적 인식과 통하고 있다. 자신이 구걸한 양식을 다른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동과 계집종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다 준 행동에서 어진 성품을 지닌 인물임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기이한 호걸적인 행적을 보였다는 점에서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인간적 풍모를 짙게 보이고 있다. '信義'를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것과 같이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평소 친분이 있는 인물을 위해 숨기고 있던 능력을 드러내 위험을 감수하는 장생의 행위는 '俠'의 실천적 면모를 지닌다 하겠다.

> 전에 樂工 李漢이라는 사람 집에서 더부살이한 적이 있었다. 머리를 쌍갈래로 땋은 계집이 胡琴을 배우느라 조석으로 만나므로 서로 친숙하였다. 하루는 구슬로 이어진 자주빛 봉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곳을 모른다고 하였다. 연유를 들어 보니, 아침에 길 위에서 오다가 준수한 소년이 있기에 웃으며 농을 붙이고 몸이 닿고 스치더니 이내 鳳尾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애처롭게 울기를 그치지 않더란다. 그래서 장생은, "우습구나. 어린 것들이 감히 그런 짓을 하다니. 아가씨야 울지 마라. 저녁이면 반드시 내 소매 속에 넣어 오겠다." 하고는, 훌쩍 나가버렸다. 저녁이 되자 계집아이를 불러내어 따라오게 하고서는, 서쪽 거리 곁 경복궁 서쪽 담장을 따라 神虎門의 모퉁이에 이르렀다. 계집의 허리를 큰 띠로 묶어 왼쪽 어깨에 들쳐매고 풀쩍 뛰어, 몇 겹으로 겹친 문으로 날아서 들어갔다. 한창 어두울 때여서 길도 분간할 수 없었지만 급히 경회루 위로 올라가니 두 소년이 있었다. 촛불을 들고 마중나와 서로 보며 껄걸 웃어대었다. 그러더니 상량 위의 뚫어진 구멍에서 금구슬·비단·명주가 무척 많이 나왔다. 계집이 잃어버린 봉미 또한 있었다. 소년들이 그걸 돌려주자 장생은, "두 아우는 행동거지를 삼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종적을 보지 못하도록 하게나." 하였다. 그런 뒤에 끌고 다시 날라서 북쪽 城으로 나와 그의 집으로 돌려보냈다.[93]

---

93) "嘗寓樂工李漢家. 有一叉鬟學胡琴, 朝夕與之熟. 一日失綴珠紫花鳳尾, 莫知所在, 蓋朝自街上來, 有俊年少調笑偎倚, 因而不見, 啼哭不止. 生曰: '唉! 小兒何敢乃爾, 願娘無泣. 夕當袖耒, 翩然而去, 及夕招叉鬟出.' 迺從西街傍景福西墻, 至神虎門角, 以大帶綰鬟之腰, 纏於左臂, 奮迅一踊, 飛入數重門, 時曛黑莫辨逕路. 倏抵慶會樓, 上有二年少秉燭相迓. 相視大噱. 因自梁上鑑嵌中出金珠

장생의 비범하지 않은 모습은 평소에 친숙하게 지냈던 계집종이 鳳尾(머리에 꽂는 노리개)를 잃어버렸을 때도 나타난다. 그가 봉미를 찾아주는 과정에서 유협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가 있었다. 계집종을 들쳐 매고서 솟구쳐 올라 몇 겹이나 되는 문으로 날아든다. 이것은 평소의 그의 모습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그가 높은 무공을 지니고 있었지만 숨기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또 봉미를 훔쳐간 소년들과의 대화에서도 나타난다. 장생이 소년들에게 "두 아우는 행동거지를 삼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종적을 보지 못하도록 하게나." 라는 말을 한다. 이것은 장생이 자신과 같이 출중한 기예 혹은 능력을 가진 자들과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장생은 일상생활에서는 드러나기를 꺼려하고 있지만 평범하지 않은 능력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경복궁 담을 타고 넘었다는 해석을 두고, 허균이 역적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있다. 그러나 허균이 「장생전」을 쓴 근본적 동기는 그가 유협적 면모를 지닌 방술에 뛰어난 인물이며, 그의 뛰어난 방술을 예찬하기 위해서였다. 장생이 행한 도술은 구제의 행위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도술은 도에 입각한 행동일 때 도술이 되는 것이다. 사리에 치우친다든가 대의명분이 결여될 때는 환술이 되어서 반드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두 소년이 차환의 봉미를 훔친 행위나, 또 다른 물건을 훔쳐 경회루 들보 위 구멍 속에 감춰 둔 것은 적발되어 처벌받는 행위이다. 장생이 봉미를 찾아준 것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준 것이기 때문에 구제의 행위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내가 젊은 시절에 俠邪들과 친하게 지냈고, 그와도 諧謔을 걸 정도로 아주 친하게 지냈던 탓으로 그의 잡기놀이를 모두 구경하였다.[94]

장생과 해학을 걸 정도로 친했다고 하는걸 보면 주로 술자리에서 어울릴 수 있는 무리들 일 것이다. 그렇게 볼 때 '俠邪'는 허균이 술자리에서 자주 어울리고 장생과 같은 사람들과도 스스럼없이 터놓고 지낼 수 있었던 인물들로 상정할 수 있다. 결국 이 '俠邪'들은 평소 그와 친하게 지냈던 여항의 무리들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허균의 俠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평소 서양갑·심우영과 교분이 있었던 허균이 현실의 연장선상에서 작품에 투영시켜 구성해 놓은듯한

羅絹甚多. 鬟所失鳳尾亦在焉. 年少自還之. 生曰: '二弟愼行止, 毋使世人瞰吾蹤也.' 遂引還飛出北城, 送還其家."(許筠, 「蔣生傳」, 前揭書, 144면)

94) "余少曰狎游俠邪, 與之諧謔甚親, 悉覩其技."(許筠, 「蔣生傳」, 前揭書, 145면)

느낌을 받는다. 서양갑, 서우영 등은 서출이지만 대부분이 높은 관직을 한 인물들의 자제들이었다. 그렇다면 생계에 별 무리가 없었을텐데 이들은 驪州江邊에서 동거하며 무리지어 살았고, 그 종적이 괴이하고 비밀스러워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기존 질서에 반하는 기질을 지닌 모습 등은 협사적 기질이 농후하게 보이는 부분이다. 이들과 같은 배경이라면 서로 어울려 다니며 협객, 협사로 불리거나 행동했을 가능성이 크며 「장생전」에서 스스로를 협사라 지칭하며, 떠돌이였던 장생과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었던 부류들 역시 이들이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신이한 인물이라는 것은 다음 장면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임진년(1592, 선조25) 4월 초하룻날 값을 뒤에 주기로 하고 술 몇 말(斗)을 사와, 아주 취해서는 길을 가로 막으며 춤을 추고 노래 부르기를 그치지 않다가는 거의 밤이 되어 水標橋 위에서 넘어졌다. 다음날 해뜬 지 늦어서야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는데, 죽은 지가 이미 오래 되었었다. 시체가 부패하여 벌레가 되더니 모두 날개가 돋아 전부 날아가 버려 하룻밤에 다 없어지고 오직 옷과 버선만이 남아 있었다.[95]

술을 마시고 수표교 아래 드러누워 자다가 죽는다. 그리고 그의 시체에서 벌레가 나와 날아갔음을 통해 그가 신이한 인물임을 암시한다.

> 武人 홍세희라는 사람은 연화방에서 살았으니, 장생과 친하게 지냈었다. 4월에 李鎰을 따라 왜적을 방어했었다. 조령에 이르렀을 때 장생을 만났다. 그는 짚신을 신고 지팡이를 끌면서 손을 붙잡고는 무척 기뻐하면서, "나는 사실 죽지 않았소. 바다 동쪽으로 향하여 한 나라를 찾아 떠나버렸소." 하더란다. 그러면서, "그대는 지금 죽을 나이가 아니오. 兵禍가 있으면 높은 곳의 숲으로 향해 가고, 물에는 들어가지 마시오. 정유년에는 삼가고 남쪽으로는 오지는 마시오. 혹 公事의 주관한 일이 있더라도 山城으로 오르진 마시오." 하고는 말을 끝마치자 날아서 가버리니 잠깐 사이에 있는 곳을 알 수 없더란다. 홍세희는 과연 탄금대의 전투에서 그가 해 준 말을 기억해 내서 산 위로 달아나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96]

---

95) "壬辰四月初吉, 賒酒數斗大醉, 攔街以舞, 唱歌不綴, 殆夜倒於水標橋上. 遲明人見之, 死已久矣. 屍爛爲蟲悉生翼飛去, 一夕皆盡, 唯衣襪在."(許筠, 「蔣生傳」, 前揭書, 144면)

96) "武人洪世熹者居于蓮花坊, 最與之昵. 四月從李鎰防倭, 行至烏嶺, 見生芒屩曳杖, 握手甚喜曰: '吾實非死也. 向海東覓一國土去矣.' 因曰: '君今年不合死, 有兵禍, 向高林勿入水.' 丁酉年, 愼毋南

홍세희가 임진왜란이 일어나 이일을 따라 왜적을 방어하러 갈 때 만나게 되는데, 이때 장생이 등장하여 홍세희에게 앞일을 예언해 주고 있다. 허균은 장생이 동해의 한 나라를 찾아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동해의 한나라는 '이상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장생이 동해의 한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현실에서 장생이 행하고자 한 일을 이룰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장생이 경희루에서 두 소년에게 행동거지를 삼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종적을 보이지 말라고한 대목과 이 부분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생은 무리를 모아 어떤 일을 모의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동해의 이상향으로 떠나버렸던 것이다. 장생이 한 나라를 찾아갔다는 것은 앞의 내용들과 호응을 이루면서, 장생의 큰 포부와 능력을 부각시키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장생전」의 주제는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개혁의지의 반영과 사회와 타협하지 못하는 갈등으로 인한 이상향의 동경이라 할 수 있다. 장생이 죽은 뒤의 행적은 평범함을 넘어 당시 유행하던 신선전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제도권의 규범에 어긋나는 인물인 장생이 택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 결국 제도권 밖으로 이탈하여 신선이 되는 문학적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2. 도가사상과 「장산인전」·「남궁선생전」

이 절에서는 16~17세기에 뚜렷하게 나타난 道仙的 경향에 주의를 기울여 당대 사회의 여러 조건에 비추어 해석하고 그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이 시기에 일어나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조선 왕조의 체제적 모순 등이 道仙的 경향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 본 절의 입장이며, 이 관계에 의하여 그것이 체제 내에서 가졌던 성격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작품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도가사상을 고찰해 봄으로써, 그의 작품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이 같은 경향의 영향권에 놓인 허균을 생각해 보겠다. 사대부 집안에서 교육받은 그가 어떤 계기와 의도로 道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침잠하게 되는가를 단계적으로 파악해 보려 한다. 이때에는 허균이 그의 생애에서 보여준 다양한 사상적 경도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식욕의 소산이 아니라, 그의 끊임없는 존재의 초월적 의식이 소산이었다는 전제가 선행 될 것이다.

來. 或有公幹, 勿登山城. 言訖如飛而行, 須臾失所在. 洪果於琴臺之戰, 憶此言, 奔上山得免."(許筠, 「蔣生傳」, 前揭書, 145면)

1) 도가사상의 확산

도교는 고대의 민간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신선설을 그 중심에 두고, 거기에다 道家·易理·陰陽·五行·讖緯·醫術·占星 등의 논법 내지 이론과 巫術的인 신앙을 보태고, 그것을 불교의 체재와 조직을 흉내 내서 뭉뚱그려진 不老長生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현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특징지워진 종교이다. 신선설은 서기전 3세기 무렵에 중국에서 생겨났으며, 중국 고대에 있었던 각지의 산악 신앙과 깊은 기원적인 관계가 있고 또 도가의 至人·眞人·神人 등에 부친 長壽 寓言을 사실같이 다루는 데서 그 내용이 풍부해졌다. 도교는 도가사상과 신선사상에다가 고대의 민간신앙을 복합시켜 종교로 변개한 것이다.[97]

노자의 도가사상은 중국 古來의 여러 가지 민간신앙을 흡수하여 '도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이룩한다. 도교에서도 흔히 노자를 자기네의 開祖 또는 中興祖로 받들고 있어서 도가사상과 혼동하기 쉽지만, 도교와 도가는 판연히 다른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교에서는 不老長生을 지향하며, 仙術을 믿고 있는데, 이것은 生死를 초월하는 노자나 장자의 사상과 크게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현실을 초극하려는 기본 태도에 있어서는 서로 상통되는 점이 많다. 어떻든 도가사상의 변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 도교는 민간신앙과 결합되면서 민간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漢代이후 2천 여년의 역사를 통하여 중국사회의 外面을 지배해온것이 유교라면, 그 內面을 다스려온 것은 도교라고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도교의 根幹이 되는 것은 神仙道, 노장의 철학, 원시적 민간신앙의 3대 요소이며, 부수적으로는 음양설, 유교적 윤리관, 불교적 체계를 혼합하여 도교가 이루어 졌다. 도교는 後漢末 張道陵에 의해서 종교적 성격을 갖추고 성립되었는데, 전래하여 온 신선사상과 중국의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노장의 철학을 교리로 하는 3기둥을 주축으로 하였으며, 여기에 당시 유행하던 음양오행설, 유교적 윤리관, 불교의 조직체계를 흡수하였으니, 오늘날에 이른바 중국민족의 고유한 종교로 말하여지고 있다.[98] 이와 같이 도교는 잡다한 요소들이 혼합하여 이루어진 종교이므로 도교사상이 무엇이냐고 할 때에는 선명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사상적 주류를 이루는 것은 노장사상과 神仙道의 묘한 결합에서 찾아 볼 수 있으므로 이 두

---

97) 도가사상과 신선사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종은, 『한국시가상의 도교사상 연구』(보성문화사, 1986), 10~30면 참조.

98) 최삼룡, 「도술계소설의 형성문제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90, 국어국문학회, 1983.

가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일 것이다.

노자와 장자의 사상으로서 표현되는 도가철학은 춘추전국시대 정치와 사상의 혼란기 속에서 싹터온 난세의 산물이었다. 도가철학은 노장의 허무와 무위자연사상의 그 핵을 이룬다. 도가는 공맹의 인위적인 道의 개념에 대립해서 자연의 道를 말하였다.[99]

삼국시대 말기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도교는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물론 불교와 함께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문학방면에 도교 특유의 신비적이고 초현실적인 특성이 많은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도교의 신비적인 사상의 영향으로 소위 신선이 등장하고 이 신선의 초인적 행적이 항간에 전파되면서 마침내는 문학을 통하여 표현하게 된 것인데, 이 표현된 작품을 소위 '神仙傳'이라 일컫는다.

신선은 仙道를 닦아 도를 통한 사람을 일컬으며, 仙境에 거주하고 神變自在하여 長生不死하는 상상적 인간을 말한다. 한마디로 신선전은 신선의 傳記이며, 소재, 주인공, 주제가 모두 신선수련과 이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100]

신선사상은 永生不死내지 不老長生을 목적으로 하는 養生術연마에 있었다. 이 사상은 전국시대이래 크게 유행하여 양생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장수한다거나 영원히 살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욕망이요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생각이 신선사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전국시대에 신선을 말하는 方士들은 이 지상 어디인가에 神仙境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대체로 발해 동쪽에 三神山이 있어 신선이 살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유혹된 군주들은 불로장생한다는 약초를 구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방사들이 발해 동쪽에 神仙境이 있다고 한 것은 東夷들이 살았던 요동과 朝鮮一帶가 신선사상의 시발지라고 하는 견해를 찾아 볼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통일신라 이전부터 고유한 仙道가 한국의 전통사상으로서 존속하고 있었다는 논거를 가능케 한다.[101]

신선설화란 간단히 정의하면 '不死를 주된 취지로 삼은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설화들은 戰國시대 중기로부터 유포되기 시작하여 秦·漢을 거쳐 魏·晉시기에 이르게 되면 이른바 志怪小說의 형태로 정착하게 되고, 그것의 기본내용이랄 수

99) 김학주, 『노자와 도가사상』, 명문당, 2007, 14~15면 참조.
100) 최창록, 『韓國神仙小說硏究』, 형설출판사, 1984, 21면 참조.
101) 이능화, 『朝鮮道敎史』, 진성문화사, 2000, 42면 참조.

있는 신선사상은 그 후 도교의 핵심적인 教義가 되어 중국민족의 잠재의식층을 형성하게 된다. 의식의 기저에 자리잡은 신선설화가 상상적 세계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였을 것은 분명하며 실제로 문학·예술에 있어서의 遊仙的 요소는 누구든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신선설화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도 일관되어 온 오해, 그것은 신선에의 추구를 특권의 유한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민중의 생활과는 무관한 백일몽이나 욕망의 극대화 등으로 인식하는 경우인데, 명백히 그러한 오해들로 인하여 신선설화의 연구가치는 크게 의심을 받아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잠시 편견을 지양하고 적어도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신선설화의 중국설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그것의 보편성 등에 입각하여 이해의 눈을 달리하게 되면 신선설화가 결코 특정한 집단적 취향의 대변물도, 배타적 자애주의의 표현물도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며, 이에 따라 우리는 신선설화의 의미체계 속에 존재하는 일종의 원형성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의 문화 전반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이입, 수용을 예상하면서 보다 넓은 신선설화 연구의 전망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102]

도교의 이러한 성향은 역사적으로 정치·사회·문화 여러 측면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어 왔다. 우리는 도교가 동아시아의 역사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경우 지배이념에 대해 對待的·補完的 위치에 서서 비판과 승화기능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도교도 왕권과 결탁하여 지배계층을 비호하고 정치상의 부작용을 낳은 적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도교는 비주류의 편에서 경직된 주류의 논리에 활력과 다양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넓은 의미에서 '기층문화로서의 도교'라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설정된 것이었다.[103]

작품의 주인공이 은둔하면서 잠시 세상에 나타나 활약하는 예를 보이지만 마침내는 신선이 되어 버리거나 종적을 감추어 버리는 결말을 보여준다. 이들은 도사의 풍모를 갖추고 있어 세속을 초월한 時空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이다.

주자학만을 중시하였던 전대 지배층의 절대적 믿음에 균열이 생기게 되어 이단이라 금기시 되었던 도교에 관한 내용이 소설에 수용되면서 공론화의 영역에 진출하였다. 17세기 전반에 이인설화를 작품으로 잘 형상화 하고 있는데 「장산인전」과 「남궁선생전」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신선사상은 우리나라 각 분야에 걸쳐 깊이 침투되었었고, 특히 국문학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로 되어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傳 전체가 이렇게 '신선'만을 주제로 다루어진 작품은 드문일이다. 허균의 시대

102) 손찬식, 『조선조 도가의 시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1995, 13~15면 참조.
103) 정재서,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도서출판푸른숲, 2002, 290~291면 참조.

에 이르러서는 이인설화가 많이 유포되고, 허균 자신이 이인에 대한 흥미를 느껴 이를 작품으로 나타내게 되었다. 허균의 傳이 가지는 공통된 특징으로서, 실존한 인물이었거나, 실재하였다고 전하는 자들로 이인을 만나 仙道를 닦았다는 설화가 巷間에 전하였으므로, 소설적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적합하였다. 허균은 이인을 동경하며, 그들을 만나보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자신이 신선술을 닦아 보려는 의도를 지녔던 사람이다. 그는 傳을 통하여 신선의 존재와 이인의 도술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허균은 중국의 신선설화에 대하여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신선지식은 자연히 작품에 나타나기 마련이므로 그의 신선관을 고찰해 보는것은 작품 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작품에서 작가는 신선들의 행적을 삽화식 또는 전기적 수법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분량은 짧지만 주인공의 행위를 통한 당시 사회의 모순성에 대한 비판과 고발을 시도 하였다. 그리고 작가의 해박한 도가적 지식으로 신이한 이야기를 엮어 최초의 신선전을 창작한 문학적 업적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결한 문장기교를 통하여 자신의 이상세계를 실현하려 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 민중사상이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문집속의 많은 傳類가 창작되고 한문단편들이 일반화하며 이들이 본격적 소설과의 공존을 누리는 분위기로 발전 하였다.[104] 민중의 자아각성이 점진되면서 이른바 실학사상이 싹트게 되었는데 이들 실학파들을 중심으로 한 문학적 형상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국 국문학사에 있어서 이 '신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작품이 언제부터 그리고 얼마나 창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신선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으로는 최치원의 「仙史」로 추정하고 있다. 이 후 본격적인 '신선전'으로 입전된 것은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창작된 「남궁선생전」·「장생전」·「장산인전」 등이 가장 이른 시기에 창작된 전에 속하고, 그 이후 상당한 수의 '신선전'이 활발히 창작되었던 것이다.

허균은 16세기 仙風의 한가운데에서 생장한 셈이다. 이처럼 그의 개인적 도가취향은 16세기 이래의 시대적 분위기와의 직접적 관련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바로 이 범에서 허균이 신선전을 창작한 것은 개인적 동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보다 큰 의미관련을 갖게 된다. 즉 그에 의한 신선적 양식의 성립은 16·7세기에 있어서의 선풍의 성향을 잘 표상하고는 있되 저급한 구비문학적 차원에 머물러 있던 이인설화를 과감히 상층의 문학 속에 끌어들여 문학적으로 일층 세련·승화시키면서 당대

---

104) 소재영, 「傳의 근대문학적 성격」,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한국고전문학연구회, 문학과지성사, 1983, 148면 참조.

사상사에 있어서의 도가적 지향을 명확히 추인한 의의를 갖는다.[105]

도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적인 세력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크게 번성하지는 못하였으나, 불교나 巫覡的인 民俗에는 도교사상이 많이 뒤섞여 있다. 특히 문학면에 있어서는 도교 특유의 신비적이고 초현실적인 면목으로 인하여 다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의 고전문학은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반영시키는 일면, 현실적인 삶이 자아내는 욕구불만을 카타르시스하는 꿈을 묘사하려는 욕구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상적 소지가 도교사상 속에는 가득 있었다.

조선조 초기 이인설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다가 17세기에 들어서면서 허균에 의해 신선전이 처음으로 입전되었고, 그의 뒤를 이어 박지원과 같은 후대의 많은 작가들이 다량의 신선전을 입전하였다. 이들 작가들은 당시 閭巷의 奇異之事와 이인설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었으며, 아울러 입전의 대상인 신선자들의 자유방달한 삶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신선전은 이단적 사상을 지녔거나 불우한 처지에 놓였던 문인·학자들에 의해 입전·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106] 허균의 傳에서는 정형적인 傳 형식에서 벗어나 구성, 창작동기, 입전인물 등의 면에서 소설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내용이다.[107] 유가적 인물전으로부터 도가적 신선전으로의 傳문학의 영역이 확대 된 것으로 당대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실천유학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成宗朝를 정점으로 新舊 士林사이의 반목은 연산군때에 이르러 처참한 사화를 불러 일으켰다. 개인감정과 권력다툼에서 생긴 무오사화는 유자광·이극돈 등이 대표한 훈구파가 金日縣이 중심인 사림파를 誣告함으로써 신진사류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참변을 일으켰다.

잇달아 갑자사화가 일어났고, 중종반정이후 도학정치의 이상을 실현코자했던 조광조 일파가 을묘사화를 크게 희생을 당하는가 하면, 명종때에 와서는 또 을사사화가 일어나 권력다툼은 절정에 이르렀다. 거듭된 사화는 마침내 당쟁의 조짐마저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명종때에는 벌써 많은 선비들이 宦路에서 물러나 산림에 은거하였다.

환로에 나아가 그들이 닦았던 실천유학의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꿈이 깨어지면서 선비들은 환로에 뜻을 잃고 山野에 묻혀 학문에 潛心하거나 아니면 현실에

105) 박희병, 「異人說話와 神仙傳」,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204~211면 참조.
106) 최준하, 「조선조 '신선전'에 대한 분석 및 비교고찰」, 『한국언어문학』46, 2001, 4면 참조.
107) 이동근, 「허균 傳의 문학사적 일고찰」, 『관악어문연구』13,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8, 186~189면 참조.

서 도피하여 明哲保身에 뜻을 두게 되었다. 이때부터 성리학의 연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서경덕·이황·이이 같은 大儒가 거의 같은 시기의 前後에 출현하여 李朝儒學의 大宗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문중에 계통을 잇는 後學들 사이에는 학파간의 논쟁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조선의 학문이 주자학 이외에는 이단취급을 받아 다양한 학문과 사상의 발전은 보지 못하였지만, 심성위주의 논의는 당시 학문의 공통된 주제라 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단시된 老·佛에 관한 사상도 비판의 자료를 삼기 위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언제 禍難이 닥쳐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속에서 내면의 안식을 구하고 保命할수 있는 사상의 바탕을 모색하는 추세는 점차 仙佛에 대한 관심으로 기울어졌으니, 특히 노장의 처세철학과 道仙의 양생술은 유자들의 개인적 수양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 시대의 사상적 동향과 道仙사상의 발전에 대한 김석하의 견해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어보자.

> 한국 思想史上 근세조선 一代를 풍미하여 사상계의 주조를 이룬 것은 췌언할 필요도 없이 유학이었다. 특히 전조 고려 말기의 儒者들에 의하여 도입 개화된 주자학은 조선왕조의 건국이념으로 채택되었고 이와 아울러 시행된 斥佛揚儒主義的 정책은 조선시대의 학계 내지 사상계에 있어서 이에 위배되는 어떤 다른 학문이나 이념의 추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주자학만이 독무대를 연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하여 역대의 儒者 내지 그 영향하의 관료계급들은 비록 그 목적에 있어서 약간은 서로 다른 점이 없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건 작건 누구나 유학적 범주에서 지치주의적 이념의 구현을 목표로 하였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노력에 서슴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이를 위하여는 政界내지 官界의 第一線에서 상호 투쟁과 알력을 거듭하기도 한 것이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국초 再次에 걸친 王子亂을 비롯한 왕실 중심의 왕위쟁탈전이니 이른바 사화로 표현되는 여러 차례의 집권층의 정당이었다.
>
> 이와 같은 정치적 禍難에 시달리는 儒者들은 그 逃命處로서 山林川澤을 찾게 되는 것도 불가피한 귀결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비록 儒門을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평소에 그들 자신이 이단시하여 외면하던 老佛 등 다른 이념세계에 출입 방황하는 예도 종종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中宗朝에 기묘사화를 겪으면서부터 더욱 두드러지게 되어, 道仙사상이 움트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거니와 儒者로서 한때 官界나 政界에 발을 들여 놓았던 이가 기회 있을 때마다 鄕里에 퇴거하는 일이 많았던 사례는 차치하고, 오직 학문과 교육에만 전념하여, 官界에의 진출을 외면하는 사례도 허다하였다.[108]

요컨대 仙風의 발생은 儒生의 지치주의적 이상이 붕괴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화와 당쟁이 연달아 일어남으로 인하여 明哲保身하려는 선비들의 자구책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학문과 교육에만 전념하게 된 유학자들이 심생위주의 성리학을 궁구하는 과정에서 仙佛의 사상을 논의하게 됨으로 인하여 더욱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109]

조선조 도가사상은 김시습의 시대를 發芽期로 하여 허균이 살던 16~17세기에 와서 활발한 움직임을 갖는 발전기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복합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는데 政爭과 戰爭이 가져다 준 인간 정신의 황폐 등이 가져온 다양한 세계관의 모색, 그리고 이인 및 신선과 같은 특출한 능력 소유자의 출현을 기원하는 정신해방의 욕구로 집약된다.[110] 不義의 세력에 대한 반감과 개인적 時勢不遇로 말미암은 분노로 道佛에 몰입한 최초의 인물은 梅月堂이며, 이후 花潭과 栗谷을 비롯한 그의 門徒들 사이에서는 유학과 노장학을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확산되어 갔다.[111] 매월당은 주지하다시피 세조의 왕위 찬탈에 불만을 품고 方外人으로 평생을 보내는 한편, 중국에서 귀화한 僧 慈惠에게 내단학을 배워 洪裕孫 등에게 내단학을 전수한 조선단학파의 비조로 알려져 있다. 매월당 뒷 시대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道學的 가치이념에서 벗어나 도교사상에 침잠하는 인사들이 많았다.[112] 필자는 혼란스런 외적 상황 뿐 아니라 개인적으론 가족들을 잃는 불우한 일을 겪은 허균이 도교사상에 심취해 괴로웠던 현실세계를 탈피하려 했으며, 이를 문학작품을 통해 승화시켜 나간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허균이 활동하던 당대에 이르러 도가사상이 대두하게 된 것은 前代 잇단 사화와 반정에 이은 동서분당과 전란의 회오리 등이 당시 지식층에 부정적 현실관을 양성하게 하는 한편, 조선 성리학이 치세이념으로서의 권위를 점차 상실하면서 도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모색하게 했기 때문이다. 즉, 잇단 사회적 혼란으로 많은 선비들 사이에는 현실의 삶을 떠나 山林川澤에서 학문에 심취하거나 方外에서 신선적 삶을 갈구하는 위축된 자세가 팽배하게 된다. 그리고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치세이념으로 권위가 엄존하였던 주자학은 현실과의 괴리에 말미암은 그 한계와 모순을 드러나게 시작하였다. 이에 주자학 이외의 다른 사상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108) 김석하,「허균의 한정록연구」,『한국문학의 낙원사상연구』, 일신사, 1973, 154면 참조.
109) 최삼룡,『한국초기소설의 道仙사상』, 형설출판사, 1982, 166면 참조.
110) 박영호,『許筠 文學과 道敎思想』, 태학사, 1999, 17면 참조.
111) 김만규,「朝鮮朝 前期의 士禍·反正과 政治思想의 修正」,『한국정치외교사학회논총』4, 1987, 52~53참조.
112) 손찬식,「朝鮮前期 丹學派의 詩文學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63~72면 참조.

이단으로 배척하였던 도교사상을 유학과의 상호보완적인 긍정적 측면에서 수용하려는 의식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이 시기의 사상적 흐름은 주자학의 내면화 및 도교사상의 고조로 특정 지워진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시대상황으로 말미암아 허균 당대에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다른 문학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현세적 가치를 허망한 것으로 인식하여 초월적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극명하게 드러난 현실 모순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허균 당대에는 정치, 학술, 사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도교사상이 부각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김시습을 시작으로 서경덕과 이이에 의해서 노장학이 상호보완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학문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는 조선조 성리학자들이 도교사상을 이단으로 배척한 것은 祈福的 성격의 것이었지 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호의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허균 당대 유자들이 도교사상에 몰입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든 이들 사이에서 내단학이 師承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폭넓게 확산되어 갔다는 사실과, 도교사상을 원용한 神仙傳과 神仙詩가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다는 문학 현상은 새롭게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다.[113]

성리학적 사고에 입각한 유가적인물인 허균이 道仙이나 佛道에 귀를 기울이게 된 데에는 대체로 여러 견해가 있다. 무엇보다도 그가 道, 佛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현실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였다. 그도 인간이기에 유가적인 규범속에 매인 구속에서 때때로 벗어나고자 어렸을때부터 탐독해왔던 불경이나 道家書를 읽고는 스스로의 마음을 달래곤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세간에 떠도는 이인 남궁두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게 되었을 것은 또한 당연하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설화는 『太平廣記』에 수록되어 있는 「王範妾」·「綠翹」·「嚴武盜妾」·「趙瞿」 등의 4편을 들수가 있고, 그 외 다수의 신선설화가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허균은 그의 유고의 기록이 말해 주듯이 수없이 많은 중국의 전기설화를 구해서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태평광기』는 조선사회 선비들의 관심도로 보아[114] 그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는 유학뿐 아니라 도학이나 불교에 깊은 조예를 가졌으며, 특히 신선에 관한 지식은 어떠한 典籍보다도 『태평광기』에 가장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어 더욱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장산인은 유가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표면적인 성격과 도가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113) 박영호, 『許筠 文學과 道敎思想』, 태학사, 1999, 27면 참조.
114) 김현룡, 「太平廣記에 나타난 神仙考」, 『국어국문학』52, 국어국문학회, 1971.

이면적인 성격 사이에서 갈등이 존재한다.「장산인전」은 작품 전체적으로 작품구조와 전개에 사회적으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산인의 경우, 당대의 사회현실이 이율배반적이었으며, 장산인과 같은 처지의 계층의식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라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처지이다. 표면적으로 나오는 의식과 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장산인의 행동이 소극적이고 바보같은 인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당대 사회에서 이념으로 삼고 있는 유교사상이 추구하는게 바로 표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부조리한 현실에 대응하는 장산인의 모습은 소극적이고 바보같은 중인계층의 현실이었다. 표면적으로 관념화시킨 상황은 비판정신은 있으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계층의 소극적 저항수준이었다. 현실에 맞선 장산인의 한계이다.

일반적으로 道家에서는 신선이 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積善을 중시하고 있다.「장생전」은 물론이고「장산인전」에서도 장산인이 펼치는 異蹟奇事가 곤경에 처해있는 백성들의 곤란을 구제해 주는 것들이다. 허균 스스로도 전우치의 異蹟奇事에 대해서 '예로부터 仙佛을 外道라 하지만 그 요체는 한가지도 악한일을 자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전우치에게 殃禍가 초래되었을 것이다'라고 하여 積善을 전제로 한 方術만이 가치를 보장받을수 있다는 의식을 표명하였다.[115] 그리고 신선이 되기위한 전제로서 積善은 불가결의 과제이며, 이는 도술로써 곤경에 처한 백성들을 구제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17세기 전반 한문소설에서는 이인설화를 작품으로 잘 형상화 하고 있는데「남궁선생전」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남궁선생전」의 작자인 허균의 부친 허엽은 화담 서경덕의 제자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서경덕의 異人的 면모에 대하여는 다른 여러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허균은 어려서부터 도교의 사상을 접할 기회가 있었고, 그 영향은 그의 문학작품을 통해서도 나타나 있다.

「남궁선생전」의 남궁두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이인이다. 이인들은 당대 현실의 질서에 융합되지 못하고 선술을 통해 초탈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로 일견 소외된 인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남다른 능력을 지닌 이인들은 동경의 대상이다. 나이가 들어도 젊어보이는 외모라든지, 역사의 흐름을 미리 예견하는 것 등은 이인이야기의 대표적인 소재거리이다. 이러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거나 불로불사의 모습을 그린 작품은 그 자체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

115) 최삼룡,「田禹治傳의 道家思想 硏究」,『道敎와 韓國文化』, 아세아문화사, 1988, 345면 참조.

2) 초월세계의 지향과 현실적 한계

허균의 문집에 수록된 그의 저술들을 살펴보면 그의 시선은 현실과 자연 두 세계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과 자연을 이렇듯 表裏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은 사화와 당쟁의 폐해가 극심하였던 조선시대의 儒者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일반적인 삶의 대응방식이다. 鮮初 이래 이단으로 배척받던 도교사상적 志趣가 儒者들의 詩와 文에서 허다하게 발견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허균은 거듭되는 파직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 好學的 성향, 그리고 자유분방한 성격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하여 도교사상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허균 스스로도 "어렸을때부터 중국의 神仙圖 및 神仙談인 「五嶽眞形圖」·「洞冥記」·「十洲記」 그리고 六朝말에 淸談思想을 배경으로 한 「世說」·「何氏語林」등을 즐겨 읽었다"[116]라고 하여 일찍부터 도교사상에 관심을 가졌음을 술회하고 있다. 당시 많은 儒者들은 문장 수업을 위해 老莊書를 愛讀하였는데,[117] 허균역시 玄妙한 志趣를 담고있는 老莊書와 佛敎書를 학문을 위해 자주 읽는 과정에서 도교사상이 은연중에 浸潤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어려서부터 일찍이 접했던 도교사상을 그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허균은 도교의 경전인 『노자』를 신비로운 龍에 비유하고 유가의 '有爲'학설보다 뛰어나다고 보았다. 그의 도가에 대한 이론적 탐색은 神仙과 養生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진다. 이는 그의 문집에 여러 차례 나타나는 신선술과 관련한 글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攝生月纂序」에서는 "이 편을 지은 것은 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잘 조리하기 위함이니 몸을 능히 다스릴 수 있다면 정신을 보존할 수 있고 혼백을 단련할 수 있으며 신선이 되어 올라가서 죽지 않을 수 있으니, 처음에는 얕고 가까운 듯 해도 마침내는 모두 지극한 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쓰임이 또한 크지 않은가."[118] 라고 하여 양생술을 긍정했다.

또한 「남궁선생전」에서는 "도에 통달하면 신선이고 도에 몽매하면 범인이다"[119]

---

116) "余少日讀何氏語林, 卽知中國有何元郞氏, 欲覩其全集而不可得…"(許筠, 「四友叢說跋」, 『國譯 惺所覆瓿藁』2, 240면)

117) "業文章者, 喜讀老莊諸書, 其氣質過高者, 又多轉而求道於釋氏之門, 唐宋諸賢是也. 至我朝, 平時則金乖崖, 近世則張谿谷, 皆不能免, 其知病此, 欲竊附於吾學, 而卒不能自解者, 無如李芝峯睟光."(朴世采, 「記少時所聞」, 雜著, 『南溪朴世采文集』권57, 1191면)

118) "是編之作, 非爲道也, 而爲攝身也, 是身能攝, 則可與存神, 可與鍊魄, 可與飛昇不死, 初若淺近, 而終則偕入於至道. 其功用不亦鉅哉."(許筠, 「攝生月纂序」, 『國譯 惺所覆瓿藁』2, 55~56면)

라고 하여 '깨달으면 부처요 미혹하면 중생이다'라는 불교의 명제를 본떠서 도교의 핵심이 得道에 있고 그것이 바로 眞仙이 되는 길이라고 했다. 그밖에 신선에 대한 동경을 그려낸 대표적인 글로 「列仙贊」을 남겼다. 허균은 명나라 문학가 왕세정이 엮은 『列仙傳』을 보고 그 가운데서 이채로운 것을 뽑아서 畵工으로 하여금 하얀 비단에 옮겨 채색으로 꾸미게 하고, 노자 이래 30여 명의 신선을 예찬한 「열선찬」을 지어, 때때로 이를 감상하며 신선을 사모하는 마음을 붙였다. 허균은 이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류들에게 용납되지 못했다. 동류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그는 다른 부류들에게서 허기진 우정을 보충했다.

그는 1613년 작당을 하여 무장항쟁을 도모하다 발각되어 혹형을 받은 서양갑·심우영등 7인의 서자들과 같은 부류와 어울렸다. 그런데 이들의 근거지에는 倫紀의 분별에 반대한다는 뜻의 '無倫'이란 편액이 내걸려 있었다고 한다. 허균은 이처럼 기존 질서(禮敎)에 반하는 인물들과 문예와 병서를 연결 고리로 삼아 교유했기 때문에 그의 주변엔 언제나 기득 계층이 아닌 유교적 세계관에서 이탈한 기인이나 잡인들이 모여들었다.[120]

허균의 작품들은 현실의 세계를 넘어선 피안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그의 작품의 주인공이 모두 불우의 인물이었다는 점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허균 傳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모순 때문에 갈등하는 인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갈등은 그들의 현실속에선 결코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현실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허균의 작품 기술태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道仙사상에 대한 평소 생각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른 순서가 되겠다. 도가에 입문하는 것은 일상적 생활환경에서 새로운 차원의 추구를 향한 변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평범한 인간에서 神的능력을 갖춘 초월적 존재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인 셈이다. 그러나 입문 이후의 수련과 득도의 과정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종교적 세계에의 탐색임과 동시에 현실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주어져야만 선택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특별한 계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지마는, 작가는 그것을 인과적인 긴밀성을 높이면서 보다 흥미롭고 극적으로 꾸밀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남궁두의 성격은 허균의 자기투사라고 할 만큼 상당히 흡사한 면을 보인다.

---

119) "達道則仙, 昧道則凡."(許筠, 「南宮先生傳」, 前揭書, 142면)
120) "無顯者來, 畸人與俱."(許筠, 「對詰者」, 『國譯 惺所覆瓿藁』2, 222면)

재주를 뽐내며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이나, 그로인해 관리에게 미움을 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 선도에 뜻을 두게 되는 과정이 그것이다. 작품의 주인공인 남궁두가 산곡으로 피신하게 된 이유에 대한 작가의 시각이 그의 오만한 자질과 발칙한 기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납지 못하고 해하려는 지배층의 편협과 公義의 부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道仙사상에 대한 그의 이해가 한 개인의 처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모순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道仙사상은 이른 시기부터 사회적 결핍을 지닌 자가 의탁하여 自足의 삶을 추구하는 일종의 독선주의적 사상체계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당대인들의 선도수용의 태도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초기 內丹學 수용자들이 정치적 실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림계열의 인물 중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들에 있어서 道仙사상은 적극적으로는 모순된 세계를 개인적으로 극복하려는 대상 이념으로서, 소극적으로는 세속의 번화를 잊고 명철보신하려는 避世的 소요관념으로 수용되었다. 단종폐위에 불만을 품고 산사에 숨어 鍊丹修鍊에 뜻을 보인 김시습, 남효온 등이나 사화에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정희량, 전우치 등의 仙家에의 傾斜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허균의 선도수용도 위와 같은 당대의 일반적인 인식에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허균의 도가적 초월세계로의 지향은 그것이 유가의 현실세계보다 가치우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에서 발붙일 수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것은 남궁두가 현실사회의 모순에 의해 배척되어 산속으로 피하여 결과적으로 내단수련에 빠져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본 작품에서의 선도입문의 과정은 허균의 생각이 남궁두라는 입전대상 인물로 구현된 것이라 보겠다.

道仙사상에 대한 당대인들의 기대심리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선계의 탈속한 이미지에 낭만적 추탈과 은둔자적의 둔세의식을 부쳤다.

내단학적 공행을 양생의 기저로 삼아 오래사는것을 기대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대치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17세기를 전후해 발생했다고 하는 주체적, 反尊華的 역사의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함께 조선 초기 이후 서민들의 영웅출현에 대한 기대심리가 교리상 초월성을 용인하는 도가로 기울어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허균의 신선전에서는 그러한 초탈의식이 주로 입전된 인물의 성격을 통하여 구현되고 있다.

허균이 그의 신선전에서 입전대상 인물인 선인을 통하여 나타내려고 했던 역사적, 사회적 기대의식도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다소 소극적으로 표현되기는 했으나 도가적 영웅의 출현을 기대하는 심리적 태도이다.

허균이 그의 입전인물에 대해 사회적 기대치를 반영하려고 한 의도는「장산인전」에서 찾아 볼 수 있다.「장산인전」은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장산인의 비범한 능력을 내용으로 한 작품이다. 그러나 수련과정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장산인 자신도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감추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장생전」과 다르다. 그리고 장산인의 異蹟奇事가 갖는 의미 역시 구제, 혹은 해결의 차원에서 찾을 수 있으나, 장생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구제행위라는 점에서 신선의 존재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즉, 장산인이 펼치는 異蹟奇事의 궁극적 목표가 백성들의 현실생활에서 직면하는 고통으로부터의 구제행위라는 사실은 신선이 민중들의 현실생활과 완전히 유리된 존재가 아니라 민중의 우상적 존재로 인식되어 시대를 달리하며, 지속적으로 신선전이 창작될 수 있었다.

「장산인전」은「장생전」보다 훨씬 도교사상이 강조되어 있는데, 여러 기이한 능력을 다른 장면을 거론하며, 그의 행적에 신빙성을 부각시켰다. 아버지가 출가하면서 남겨준 도가책을 읽은 뒤에, 귀신을 부르고, 학질을 다스리는 능력을 터득했다 하여 '도가'로써의 능력을 입증하였다. 신선적인 면모를 암시하고, 기이한 행위를 입증하며 이미 신선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면서, 남궁두와는 달리 선천적인 능력에 의해 仙道를 깨우치고 통달했음을 보여준다.「장산인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산인의 집안은 寒微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귀신을 능히 희롱할 만한 방술을 지니고 있었다. 아버지가 98세 때 집을 떠나면서 그에게「玉樞經」등을 남겨주며 계속 읽도록 하였다. 그가 이 책들을 수 만번이나 읽자 그도 귀신을 부릴 줄 알게 되었다. 그 뒤 지리산에 들어갔다가 이인을 만나 열심히 방술을 배웠다. 하루는 두 스님과 함께 산골짜기를 가다가 호랑이 두 마리를 만났는데 그가 범을 꾸짖자 범은 꼬리를 흔들며 생명을 구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 그들은 범을 타고 절로 돌아왔다.

장산인은 18년 만에 서울로 와서 동대문 밖에 살며 흉가의 뱀을 죽이기도 하고 죽은 물고기를 살리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때는 왜적의 칼에 맞았으나 쓰러지지도 않고 피가 흰 기름과 같았으므로 적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다. 그 뒤에 그가 죽자 스님들이 시신을 화장하였으나, 그 해 9월에 그는 강화에 살고 있는 친구의 집을 방문하여 사흘을 묵고 금강산으로 떠났다고 한다.

허균이「장산인전」에 수록하고 있는 異蹟奇事는 治病, 주술적 능력을 통한 요괴 퇴치, 죽은 물고기와 꿩을 되살리는 행위, 그리고 검행과 그 이후의 재생들이다. 이

작품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治病과 요괴 퇴치는 신선이 신이한 능력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적선공적에 입각한 구제행위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허균은 이 작품을 통해 초능력의 소유자인 장산인의 영웅적 활동에서 무력하였던 왜란의 참상을 역설적으로 표출시켰으며 나아가 허균의 의식세계가 신선사상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장산인이 임진왜란에 대처하는 모습에 대한 기술태도에서 그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장산인은 임진왜란때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였고, 왜구가 침입해 왔을 때에는 앉은 채 칼을 받았다.

> 그의 피는 하얀 기름처럼 흘렀으며 시신이 꼿꼿이 서서 넘어가지 않았다. 갑자기 큰 우레가 치며 비가 쏟아지니 왜구들이 두려워하여 달아났다. 산승들이 그를 화장할 때 상서로운 빛이 三晝夜를 뻗쳐 닿았다. 사리 일흔 두 낱을 얻으니 그 크기가 연밥만 하고 빛깔은 감푸렀다. 탑중에 간직하였다.[121]

위에서 보듯이 장산인의 최후는 상당히 극적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처럼 특히 임진왜란을 의식하면서 선인의 비범성을 높이려 했던 의도는 다음으로 볼 수 있다. 허균은 어떻게든 임진왜란 중에 겪었던 민족적 모멸감을 보상받고 싶어 했을 것이다. 이럴 때 조선에는 보통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가 있었음을 증명함으로써 倭人들에 대한 상대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소극적인 모습으로밖에 보여주지 못했던 것은 傳의 기술양식상 특징에 기인했다고 보겠다. 사실중심의 기술이라는 傳양식의 기본적 전제로 해서 비록 작가적 변용을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마저 허구화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처럼 道仙사상의 틀 속에서 타민족에 대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세우려는 시도가 특히 16~17세기에 이르러 있었다. 허균은 공통적으로 道仙사상을 바탕으로 한 실재 인물들의 일생을 서사구조로 재구성 하였는데, 이를 의미영역별로 분석하고, 그리고 작가 허균의 생각은 어떠한 모습으로 투영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남궁선생전」은 허균의 傳 가운데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작품이다. 허균은 무한한 상상력과 변화무쌍한 구성을 통하여 인간적 삶의 한계와 고뇌를 드러내고자 남궁두라는 실재 인물을 주인공으로 傳을 창작했다. 곧 허균은 유가와 불가와 신선의 세계를 경계 짓지 않는다. 그는 현실세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상상의 세계

---

121) “其血如白膏立不僵, 俄而大雷雨, 賊懼而去, 山僧茶毗, 則瑞光獨天三晝夜, 得舍利七十二粒, 其大如芡實也, 紺碧藏之塔中.”(許筠, 「張山人傳」, 『國譯 惺所覆瓿藁』2, 126면)

를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세계를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구성방법을 시도했다.

허균의 작품들은 대부분이 현실 초극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부조리한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모순된 사회현실 속에서 무력하게 부서져 버리지 않겠다는 강한 내적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허균은 남궁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선생의 이름은 斗, 대대로 臨陂에서 살아 집안도 오래되고 넉넉하여, 재산이 고을에서는 알아주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2대에는 과거에 뽑혀 관리되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나, 남궁두만은 박사의 제자로서 과거공부를 하여 집안을 일으키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30세에 처음으로 을묘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科場을 울렸다. 일찍이 「大信不約賦」라는 글을 지어 성균관 시험에 수석으로 뽑혀 사람들이 모두 그 글을 傳誦하기도 했다.[122]

「남궁선생전」은 허균이 공주목사로 있다가 파직당하여 부안에 살고 있을 무렵(1608)에 남궁두를 직접 만나 보고 본 傳을 썼다 라고 밝히고 있다.[123] 그 당시 이인 남궁두에 대한 이야기는 이수광의 『芝峯類說』, 유몽인의 『於于野談』, 유광익의 『楓巖輯話』 등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이를 허균이 입전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상당한 내용차이가 있는 바, 이는 작가의 창작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궁선생전」을 통하여 허균의 도교관을 살펴보자. 허균은 유년 시절부터 이인의 행적과 설화에 관심이 많았던 터에 공주목사 파직 후에 古阜에서 남궁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때 83세의 남궁두의 壯年紅顔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란다. 선술을 닦은 자의 이인다운 풍모에 놀란 것이다. 허균은 그와 수십 일을 함께하면서 그의 체험담을 듣고 한편으로는 道仙에 대한 사상을 전수받아 사상적 폭을 넓혔다. 保頤攝養法, 神仙飛昇에 관한 이야기 등도 그를 통해 듣게 된다. 그러나 결국 신선비승에 실패하고 하산하여 평범한 인간의 속성을 넘어서지 못한 인간적 유한성과 비극을 알게 된다. 그래서 허균은 傳의 말미의 평결부에서 남궁두가 들려준 이야기는 전적

---

122) "先生名斗, 世居臨陂, 家故饒, 財雄於鄕. 自其祖父二世皆不肯推擇爲吏, 斗獨以博士弟子業起家. 年三十始中乙卯司馬, 有聲場屋間. 嘗以大信不約賦魁泮解, 人皆傳誦之."(許筠, 「南宮先生傳」, 『國譯 惺所覆瓿藁』2, 127면)

123) "萬曆戊申秋, 均罷公州家扶安, 先生自古阜, 步訪於旅邸, 因以四經奧旨授之, 且以遇師顚末評言如右."(許筠, 「南宮先生傳」, 前揭書, 141면)

으로, 믿을 수는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남궁두의 젊고 건강한 모습을 보고 仙道의 징험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우리나라에 신선이 있다는 말도, 없다는 말도 허황된 것으로 치부할 수도 없다고 말하면서 선도에 대해 도를 통하면 그것이 바로 신선일 것이오, 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곧 凡人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신선이 없다고 전하는 말은 남의 말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는 소치라고 말하고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허균은 중국의 신선소설에 대하여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신선지식은 자연히 작품에 나타나기 마련이므로 그의 신선관을 고찰해 보는 것은 작품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상으로 삼은 「남궁선생전」은 허균 자신의 신선에 관한 뚜렷한 이론을 전개한 설명부분이 말미에 첨가되어 있어, 그의 신선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허균의 道仙사상에 대한 이해는 한 개인의 처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모순과 관련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대체로 허균은 「남궁선생전」을 통해 볼 때 신선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신선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깊이 탐닉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남궁선생전」의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그대야말로 仙才와 道骨있으니 힘써 행하고 쉬지 않는다면 眞仙이 되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네. 우리 스승께서 일찍이 나에게 인내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참아내지를 못하고 이 지경이 되었네. 忍이라는 글자 하나는 仙家의 오묘한 비결이니 그대 또한 삼가 지니고 놓치지 말게나."[124]

이는 허균 자신이 신선설화에 나오는 地仙같은 道骨을 가졌음을 설파한 것이다. 곧, 그가 파직을 하고 부안에 있을 때 남궁선생이 찾아와 득도과정과 그의 스승 이야기를 해주고는, 허균에게도 道骨이 있으니 力行不替하면 신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이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허균 자신이 난세에 처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신선설화에 나오는 그런 술법을 가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환상에 젖은 나머지, 깊이 신선세계를 몰입하였음을 말해 준 것이다. 그것은 다음 계속된 글에서 더욱 잘 나타나 있다.

허균은 논한다. 전해오는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는 숭상했어도 도교는 숭상하

---

124) "君有仙才道骨, 力行不替, 眞仙去君何遠哉. 吾師嘗許我以忍, 不能忍而至是, 忍之一字, 仙家妙訣 君亦愼持勿墜也."(許筠, 「南宮先生傳」, 前揭書, 142면)

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다. 신라 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몇 천년이 지났으나 득도하여 신선되어 간 사람이 있음을 듣지 못했다. 그렇다면 전해오는 말이 과연 징험이 되는 말이랴. 그러나 내가 보았던 남궁선생으로 말한다면 이상할 수밖에 없다. 선생이 스승으로 여겼던 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相보는 사람에게 알아냈다는 것도 결코 확실히 믿을만한 것은 못되며, 말했던 것들도 역시 모두 그렇지만은 않으리라. 요컨대 그림자나 메아리 같은 실체 없는 소리이리라. 다만 선생의 나이와 용모로 본다면 참으로 득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닐 것인지. 어찌하여 80의 나이이고도 그처럼 건강했으랴. 이건 또 도교 숭상하는 일이 실제로 없었다고 결정내릴 수도 없으리라. 아아, 그거야말로 기이하도다. 우리나라가 궁벽한 바다 밖 멀리에 있어 뛰어난 隱士로 선문자나 안기생과 같은 분들이 드물었으나 암석의 사이에 그러한 이인이 있어 여러 천백 년 만에 남궁선생으로 하여금 만날 수 있게 하였으니 그 누가 '좁은 지역이니 그러한 인물이 없다.'라고 말하랴. 도에 통달하면 신선이고 도에 몽매하면 범인이다. 전해진다는 말이 耳食과 무엇이 다르리오. 선생으로 하여금 빨리 이루려던 욕망이 없게 하여 끝내 단련하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만 했다면 저들 선문자·안기생과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맞서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으랴. 다만 그분이 찾아 내지 못하여 다 이루어진 功을 실패하고 말았으니 오호, 애석하도다.[125]

이 결론부분을 보면, 신선을 부정해 오던 종래 유학의 태도에 회의를 느끼고, 자꾸 신선에로 빠져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균은 남궁두의 믿기 어려운 得道談을 가지고 부정해 버리지 못하였다. 감탄과 회의를 하며 동경하고 있다. 이는 곧 「남궁선생전」을 통해 허균이 당대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 남궁두라는 인물을 통한 신선술을 인정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남궁두가 신선이 되지 못하고 地上仙에 머무른 것을 애석해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

125) "許子曰, 傳言東人尙佛不尙道, 自羅逮鮮數千載, 未聞有一人得道仙去者, 其果徵哉. 然以余所覩.南宮先生言之, 可異焉. 先生所師者果何人, 而得於相師者, 未必的然可信, 所悅亦未必盡然. 要之影響之間也. 但以先生年貌看之, 非眞能得道者耶. 那能八十而若是康健耶. 此又不可決以爲實無是事也. 噫其奇哉 我國僻在海外, 之遐氣之士如羨門安期, 而巖石間乃有此異人, 累千百年, 俾先生一得遇之, 孰謂偏壤而無其人耶. 達道則仙, 昧道則凡. 傳所言者與耳食奚殊. 使先生毋望其速成, 卒收爐鼎之效, 則彼羨門安期, 亦何難拍肩而等夷之, 唯其不忍, 以敗垂成之功. 嗚呼惜哉."(許筠, 「南宮先生傳」, 前揭書, 142면)

"우리나라가 궁벽한 바다 밖 멀리에 있어 뛰어난 隱士로 선문자나 안기생과 같은 분들이 드물었으나 암석의 사이에 그러한 이인이 있어 여러 천백 년 만에 남궁 선생으로 하여금 만날 수 있게 하였으니 그 누가 '좁은 지역이니 그러한 인물이 없다.'라고 말하랴."[126]

감탄과 회의를 하며 동경하고 있다.

"몰래 해로운 일을 하지 말며, 귀신이 없다고 말하지 말게. 착한 일을 행하고 덕을 쌓으며 욕심을 끊고 마음을 단련한다면 上仙의 극치를 세울 수 있으며, 난새와 학이 며칠 사이에 내려와 맞아줄 것이네."[127]

극진히 도를 닦으면 신선이 되어 올라갈 수 있고, 난새와 학을 맞으려 올 것이라는 강한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유학자들이 이러한 신선논의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비하여, 허균은 전혀 예외임을 알 수 있다. 많은 신선설화를 읽고 이를 사실적으로 받아들여 동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남궁두가 너무 速成할 것을 꿈꾼 나머지 得仙을 못했다는 내용을 못내 안타까워 한 점은 주목할 만한 하다.[128] 이러한 안타까워하는 결말은 그가 신선에 혹하여 꿈의 세계를 遊泳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갖게 한다. 그리고 허균의 이러한 신선사상에 몰입되어 버린 그의 인생관은 뜻대로 되지 못하게 한 사회적 여건에 기인된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작품속에서 표현된 사회적 여건을 살펴보자.

"三島帝君이 있어 말하기를 '염부제에 살고 있는 三韓의 백성들이 지나치게 교사스럽고 간사하여 속임수를 잘 쓰고 복을 아끼지 않으며,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효·불충하고, 귀신을 모독하였다. 그래서 구림동에 사는 이면의 大魔를 빌려다가 적토의 군대를 모두 모아 가서 소탕하려 한다. 그래서 연속된 전쟁 7년째에 나라는 다행히 망하진 않을지라도 3방의 백성들을 10에 5~6을 살육하여서 경계하려 한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신하인 저희들도 그 말을 듣고 역시 모두 두려워서 마음이 떨리더이다. 그러나

126) "我國僻在海外, 之遐氣之士如羨門安期. 而巖石間乃有此異人, 累千百年. 俾先生一得遇之, 孰謂偏壤而無其人耶."(許筠, 「南宮先生傳」, 前揭書, 142면)
127) "毋陰行險, 毋曰無鬼神, 行善積德, 絶慾煉念, 則上仙可立致, 鸞鶴不日下迎矣."(許筠, 「南宮先生傳」, 前揭書, 141면)
128) "使先生毋望其速成, 卒收爐鼎之效, 則彼羨門安期, 亦何難拍肩而等夷之. 唯其不忍, 以敗垂成之功. 嗚呼惜哉."(許筠, 「南宮先生傳」, 前揭書, 142면)

큰 운수의 소관인데 어찌 감히 힘으로 해결되겠습니까?"[129]

임진왜란의 쓰라림을 논의하고 있는것이다. 이는 울분을 참지 못하여 신선의 입을 빌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산중이 너무 한가하고 적막하여 속세로 내려왔으나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을뿐더러, 가는 곳마다 젊은이들이 나의 늙고 누추함을 멸시하여 인간의 재미라고는 전혀 없네. 사람이 오래도록 보고 싶어하는 것이란 본래 즐거운 일인데, 쓸쓸하고 즐거움이라고는 없으니 내가 왜 오래 살려고 하겠는가? 이 때문에 속세의 음식을 금하지 않고 아들을 안고 손자를 재롱부리게 하며 여생을 보내다가 승화하여 깨끗이 돌아가 하늘이 주신 바에 순종하려네."[130]

또한 빨리 이루기를 바라다가 신선이 되지 못하고 하산한 남궁두의 표현에서 실의에 찬 허균 자신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허균의 도가적 초월세계로의 지향은 그것이 유가의 현실세계보다 가치우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에서 발붙일 수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택한 결과인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허균은 飛昇之術의 道仙술에 대해 가능성과 의구심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그는 '達道則仙, 昧道則凡'이라는 비승이나 육신을 탈바꿈하는 仙이라기 보다는 도를 깨우친 자가 바로 신선이라는 道仙觀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허균은 남궁두를 통하여 숙명과의 대결에서 좌절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 듯하다. 남궁두는 세속-불가-선계-세속을 넘나들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인간의 한계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다.

신선이 되어 인간으로서 겪은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음은 단순히 仙界로의 도피에서 인간적인 갈등을 잊어버리려는 체념 혹은 인간세상에 대한 허무주의의 발로라고 보여진다. 체념 혹은 인간세상에 대한 허무주의는 인간으로의 갈등해결의 불완전한 것을 仙界에서 해결한다는 의미로 쓰여진다.

결국 현실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마침내 어떤 세계를 지향하며 살아

129) "有三島帝君道, 閻浮提三韓之民, 機巧姦騙, 誑惑暴殄, 不惜福不畏天, 不孝不忠, 嫚神瀆鬼. 故借句林洞貍面大魔, 拳赤土之兵往勦之. 連兵七年, 國幸不亡, 三方之民, 十集其五六以警之. 臣等聞之, 亦皆心怵. 而大運所關, 何敢容力乎."(許筠, 「南宮先生傳」, 前揭書, 139면)

130) "近日山中頗苦閑寂, 下就人寰, 則無一個親知, 到處年少輩輕其老醜, 了無人間興味. 人之欲久視者, 原爲樂事, 而悄然無樂, 吾何用久爲. 以是不禁烟火抱子, 弄孫以度餘年, 乘化歸盡, 以順天所賦也."(許筠, 「南宮先生傳」, 前揭書, 141면)

갔는가를 보여준 작품이다. 남궁두는 자신의 자유분방성이 현실에서 용납될 수 없음을 깨닫자, 현실을 떠나 무주 치상산속의 노승을 찾아 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선이 되기 위해 힘쓴다. 무주 치상산은 현실계와 유리된 선계이다. 그것이 도교의 세계건 그렇지 않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곳은 현실에서 부적당한 사람이 안주할 수 있는 곳이고, 초월적 세계로의 비상이 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남궁두는 초월적 세계로의 비상이 불가능했다. 그는 마침내 신선이 될 수 없었고, 다시 현실계에 내려와 地上仙의 경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신선이 되지 못하고 地上仙에 머물게 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현실 초극 의지의 좌절인 동시에 현실에 대한 강한 집념의 암시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끝없이 좌절하고 그 속에서 고뇌한다. 지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는 인간적 고뇌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다. 이것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남궁선생전」의 입전인물 남궁두도 끊임없이 좌절하고 고뇌한다. 처음에는 유가의 현실에서 추방되는 좌절을 맛보았다. 뛰어난 능력과 강인한 정신을 지니고 있었으나 자만심과 거만한 태도로 생활하였다. 거기다가 남궁두는 우발적인 살인을 하게 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현실에서 추방되었다. 그러므로 유가사회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좌절을 겪게 되었다. 이에 남궁두는 선계로 나아가서 현실에서 겪은 좌절을 극복해 보고자 한다. 남궁두는 인내심이 강하여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그러나 인간의 욕념으로 다시금 신선이 되지 못하는 좌절을 맛보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현실세계에서 지상선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두는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고뇌한다. 현실의 삶에서 장수는 곧 즐거움을 위한 것인데 실제 즐거움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자신이 젊어 보이는 것에 대한 회한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남궁두는 지상선으로서의 삶에서도 좌절을 겪고 하늘이 보여한 이치를 따르면서 삶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 곧 속인들이 먹는 음식을 금하지 않고, 아들도 안아보고, 손자재롱도 보며 여생을 보내는 삶에 안주하게 된다.

따라서 「남궁선생전」은 신선이 되는것에는 실패하였지만, 결국 남궁두라는 인물을 통해 유교적 질서만 고집하던 당대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현실극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도교적 세계라는 願望空間에 대한 동경의식을 가진 異人으로서의 남궁두의 모습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넘어서야 될 고난의 연속속에서 정신적 안식처로 삼은 仙道의 세계를 남궁두란 인물의 일생속에서 찾은 것이다. 좌절과 고난으로 종말을 맞는 남궁두의 불우한 생

애를 그는 동정하고 옹호하며 안타까워 하면서 간접적인 현실비판으로 종결짓고 있다. 이상 「남궁선생전」에 주로 나타나는 神仙에 대한 작자의 인식 태도를 살펴보고 당시 작자가 처한 현실세계와 그것의 문학적 반영을 검토하여 작품과 현실과의 거리를 조명해 보았다.

Ⅴ. 결 론

허균 傳에 대한 연구는 그 소재와 주제 및 작가의 사상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그 작가와 작품의 연계성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가와 시대상에 관한 논의가 작품 연구와는 별개로 이루어짐으로써, 작품의 생산 기반으로서의 작가의 개별 작품과 사회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견지에서 주인공의 행동 논리 분석에 중점을 두고 일관된 구조와 사회적 의미를 파악해 보려 하였다.

허균이 살았던 시대는 끊임없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매우 험난하고, 다사다난한 시기였으며, 낡은 시대의 권위는 도전받고 새 시대를 이끌 이념은 채 정립되지 못하여 방황과 암중모색이 들끓던 역사의 격동기였다. 그릇된 조선시대의 풍속과 법도는 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허균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앞선 생각을 실현시키기에는 너무 고립되고 좁은 세계에 살고 있었다. 결국 그는 반역죄의 죄목을 물어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앞선 세계관은 채 펴보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된다. 허균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가정과 환로에서 많은 불행을 겪었고, 이를 자아 성찰과 현실인식의 깊이를 더하는 계기로 삼아, 적거나 한폐의 문학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문학관을 보여주었으며, 예교에 속박된 자아를 해방시켜 개성을 추구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둘째, 佛·道에서의 정신적 안식과 현실 정치에 대한 집착이란 상반된 욕구사이에서 방황하였고, 많은 외교 활동 경험을 통해 다양한 학문과 사상에 관심을 넓히고 국제 정세에 대한 식견을 갖게 되었다.

셋째, 예교의 속박을 거부하고 개성과 자유 의지에 따른 삶을 추구한 그는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 불우인들과의 우정의 결속을 통해 이를 실천하였다.

그가 활동했던 당대의 시대상을 간추려 보면,

첫째,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인명과 경작지 감소 등의 물질적 피해도 극심하였고, 중세 봉건 체제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각성이 촉발되어 계층 구조의 동요, 민란의 속출, 실학과 서민 문학의 태동 등의 큰 변혁의 조짐이 나타났다.

둘째, 고질적인 당쟁으로 인하여 국정과 사회 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지고 민생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셋째, 서얼 차별이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넷째, 임진왜란의 피해에다 관리, 토호들의 횡포와 농간이 겹쳐 많은 농민들이

유민화, 군도화하여 농촌사회가 몰락하였다. 조선초기부터 유민시가 하나의 문학적 유형으로 자리잡아 온 사실로 보아서도 유민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작품의 구조와 사회적 의미를 분석, 파악해 본 것이다.

「손곡산인전」은 주인공 이달의 불우한 삶을 통해 신분제도의 모순을 지적하고 유교사회의 행동규범을 비판한 작품이다. 주인공 이달은 서출로 태어나 서얼금고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능력있는 자신을 포용해 주지 못하는 당대 사회를 비판하였고, 세속의 예법에 구속되기를 싫어하는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禮道만을 강요하는 당대 사회에 도전하였다. 허균이 예속을 거부하고 검속하지 못한 생활로 예교사회를 뛰어넘고자 한 인물이었음을 감안해 보면, 허균이 이달을 입전한 것은 스승이었던 그에 대한 인간적 동정인 동시에 그를 통해 자기 자신을 투사시켜 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엄처사전」은 당대의 훼손된 유교질서를 고발하고 이것의 시정을 촉구한 작품이다. 주인공 엄충정은 스스로 당대 현실에 차단된 삶을 살아가면서 모범적인 儒者의 삶을 추구해 간다. 엄충정이 현실과의 交通을 차단하고 山水間에 은거한 것은 당대의 훼손된 유교적 가치를 회복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부조리한 역사현실과 화합할 수 없는 불우한 인간상의 제시를 통하여 능력과 노력보다는 生來的인 문벌과 계층구조에 의해 규정되고 움직이는 모순된 사회현실에 대한 저항을 내면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허균은 그런 엄충정을 이상적인 儒者의 像으로 제시를 하였다.

「장생전」은 본래적 가치회복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장생은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현실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와 상호 대립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유협적인 면모를 부각시켜 현실을 타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결국엔 현실에서 이룰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한 강렬한 집념이 초월세계에 대한 이상 지향으로 나타난다.

「장산인전」은 불우한 능력자의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그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당대 현실을 거부하고 비판한 작품이다. 주인공 장한웅은 당대의 사회현실에서 자신의 능력을 활개치고 펴볼 수 있는 계층은 못되었지만, 비범하고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을 활개치고 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고 따라서 당대 현실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의미를 쟁취하고자 하였다.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한웅의 신선적인 면모를 부각시켜 꿈을 이루고자 했지만, 결국은 시행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작품내에서 제시되고 있다.

「남궁선생전」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전제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진다. 남궁두는

비록 살림이 풍족했으나 시세에 영합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 집안은 대대로 아전에 불과했지만 성균관 시험에 장원할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지녔으며 성격이 강인하고 자유분방하여 시속에 얽매일 수 없는 인물이었다. 허균이 창조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중요한 의미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은 사회의 표현이다. 작가인 허균은 자기의 체험과 인생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개념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작가는 작품에 인생 전부를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작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시대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앞서 살펴본 사회적 배경의 맥락속에서 허균은 그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어떻게 진단하였고, 그러한 사회문제의 해결, 개혁을 위해 어떠한 사상으로 준비하고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허균의 사상이 사회의 제반여건들과 결부되어 작품속에서 소재 또는 주제의식으로서 어떠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는가를 면밀한 작품분석을 거쳐 살펴보았다. 그것은 허균의 문학작품 창작의 동기와 작품속에 반영된 사회의식을 이해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자료

『光海君日記』, 한국고전번역원, 1992.

『조선왕조실록』, 한국고전번역원.

『韓國史』, 震檀學會, 을유문화사, 1980.

허균, 『惺所覆瓿藁』, 한국고전번역원, 1989.

『許筠全集』,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2.

저서

강동엽, 『조선 지식인의 문학과 현실인식』, 박이정, 2008.

강명관, 『안쪽과 바깥쪽』, 소명출판, 2007.

구자균, 『조선평민문학사』, 민학사, 1984.

김동욱, 『한국의 사상가 12人』, 현암사, 1976.

____ , 『허균 연구』, 한국문학연구총서 고전문학편7, 새문사, 1992.

김학주, 『노자와 도가사상』, 명문당, 2007.

박영호, 『허균 문학과 도교사상』, 태학사, 1999.

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소재영, 『국문학편답기』, 아세아문화사, 1999.

____ , 『壬丙兩亂의 충격과 문학적 대응』, 지식산업사, 1987.

손찬식, 『조선조 도가의 시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1995.

이능화, 『朝鮮道敎史』, 진성문화사, 2000.

이문규, 『허균 산문문학 연구』, 삼지원, 1986.

이성무, 『조선 양반사회 연구』, 일조각, 1995.

이이화,『허균』, 한길사, 1997.
____ ,『허균의 생각』, 여강출판사, 1991.
이종호,『조선의 문인이 걸어온 길』, 한길사, 2004.
정재서,『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도서출판푸른숲, 2002.
정주동,『홍길동전 연구』, 민족문화사, 1983.
조동일,『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2005.
____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2005.
____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98.
陳寶良,『中國流氓史』, 서울 아카넷, 2003.
陳　山,『中國武俠史』, 동문선, 1997.
차용주,『許筠硏究』, 경인문화사, 1998.
최삼룡,『한국초기 소설의 道仙사상』, 형설출판사, 1993.
____ ,『한국문학과 도교사상』, 새문사, 1990.
최창록,『韓國神仙小說硏究』, 형설출판사, 1984.
허경진,『허균평전』, 돌베개, 2002.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탐구당문화사, 1995.

논문

강동엽,「洪吉童傳의 主題攷」,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2,
____ ,「許筠의 傳에 대한 考察」,『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연구회, 1977.
김명호,「신선전에 대하여」,『한국판소리 고전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83.
김무헌,「許筠의 漢文小說硏究」,『강릉교대논문집』5, 1973.
김석하,「허균의 한정록연구」,『한국문학의 낙원사상연구』, 일신사, 1973.
김　영,「조선후기 인재등용 문제와 한문산문」, 민족문학사연구, 1994.
____ ,「조선후기 傳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국어교육연구』7, 인하대학교,

1995.
김은경,「허균 '傳' 연구」, 강릉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정일,「游俠傳硏究」,『국어국문학』16, 동아대학교, 1997.
김현룡,「교산의 남궁선생전 연구」,『國文學論集』, 1972.
____ ,「太平廣記에 나타난 神仙考」,『국어국문학』52, 국어국문학회, 1971.
도명순,「遊俠傳 硏究」,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7.
박수천,「許筠의 傳과 世界觀」,『부산한문학연구』5, 부산한문학회, 1990.
박영호,「許筠文學硏究-도교사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박현규, 「許筠이 도입한 李贄의 저서」, 『중국어문학』46, 영남중국어문학회, 2005.
박혜순,「俠傳의 초기적 형태로서의 '蔣生傳'연구」,『어문논집』60, 고려대학교, 2009.
박희병,「조선후기 傳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배영주,「許筠의 文學에 나타난 思想硏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설석규,「16세기 처사형 사림의 성리학이해와 출처관-花潭 徐敬德과 南冥 曺植의 경우」,『南冥學硏究論叢』9, 2001.
손찬식,「朝鮮前期 丹學派의 詩文學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소재영,「傳의 근대문학적 성격」,『근대문학의 형성과정』, 한국고전 문학연구회, 문학과 지성사, 1983.
신병주,「16세기 초 처사형학자의 학풍과 현실관-金大有와 朴河談을 중심으로」,『南冥學硏究論叢』5, 남명학연구원, 1997.
신재홍,「허균의 한문단편 연구」, 서울대학교, 1986.
윤채근,「허균 傳에 나타난 不穩한 인간상의 문제-누아르적 세계의 등장과 타자의 서사」,『한문학논집』28, 근역한문학회, 2009.
이능우,「許筠論」,『淑大論文集』5, 1965.

이동근,「許筠 傳의 文學史的 一考察」,「관악어문연구」13집, 서울대학교, 1988.

이화섭,「許筠의 傳体小說攷」,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전관수,「李達의 시세계와 형상화 방식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정교주,「許筠文學硏究-문학관과 산문작품의 갈래별 특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조문주,「許筠의 漢文傳 硏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최삼룡,「도술계소설의 형성문제에 대한 고찰」,『국어국문학』90, 국어국문학회, 1983.

최준하,「조선조 神仙傳에 대한 분석 및 비교고찰」,『한국언어문학』46, 2001.

허경진,「蓀谷李達硏究」,『원주학술총서』3, 2006.

홍승화,「蛟山의 漢文小說에 관한 硏究」,『伏賢漢文學』1, 伏賢漢文學硏究會, 1982.

황패강,「조선왕조소설 연구」,『한국연구총서』34, 한국연구원, 1978.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한문교육	학 번	20098032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이 혜 인 한문: 李 慧 仁 영문: Lee Hye-In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아남아파트 102동 103호				
연락처	010 * 6609 * 1260 E-MAIL: 01066091260@hanmail.net				
논 문 제 목	한글 : 허균 傳의 社會史的 脈絡 영문 : The Context of Social History in Heo Kyun Jeo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

2012년 1월 7일

저작자: 이 혜 인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